Collection @ chosun

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8296

Collection @ chosun

2009년 8월
석사학위 논문

S. V. Rachmaninoff의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음 악 학 과

정 다 운

Collection @ chosun

S. V. Rachmaninoff의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 V. Rachmaninoff's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

2009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음 악 학 과

정 다 운

Collection @ chosun

S. V. Rachmaninoff의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서 영 화

이 논문을 음악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음 악 학 과

정 다 운

Collection @ chosun

정다운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9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목 차

Ⅰ. 서론 1
A. 연구 목적 1
B. 연구 방법 1

Ⅱ. 변주곡(Variation)에 대한 이해 3
A. 변주곡의 발달사 3
B. 변주곡의 유형 7
C. 변주의 기법 9

Ⅲ.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 분석 13
A. 작품 배경 13
B. 전체 구조 14
C. 주제와 변주 16

Ⅳ. 결론 44

참고문헌 46

Collection @ chosun

표 목차

<표 1> 주제와 변주의 배열…… 10
<표 2>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의 전체 구성…… 15

Collection @ chosun

악보 목차

[악보 1] J. S. Bach <Goldberg Variations, BMW.988> Aria 1-12마디····· 5
[악보 2] L. V. Beethoven <Diabelli Variations, Op.120> 주제 1-6마디···· 6
[악보 3] J. Brahms <Variations on Theme by Paganini, Op.35> 주제 1-4마디····· 7
[악보4] J. S. Bach <Chaconne, BWV 1004> 1-6마디····· 8
[악보5] J. S. Bach <Mass in b minor, BWV 232> 바소 오스티나토····· 8
[악보6] J. S. Bach, <Passacaglia und Fugue in c minor, BWV 582>···· 9
[악보7] W. A. Mozart <12 Variations on the song "Ah, vous dirae-je, Maman", K. 265> 제 1-12마디, 제 1변주 1-4마디····· 11
[악보8] R. Schumann <Abegg Variation, Op.1>····· 12
[악보9] S. V. Rachmaninoff,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 주제····· 16
[악보10] 주제의 순차진행····· 17
[악보11] 제 1변주 1-5마디····· 18
[악보12] 제 1변주 6-8마디····· 18
[악보13] 제 1변주 15-16마디····· 19
[악보14] 제 2변주 1-8마디····· 20
[악보15] 주제 1-2마디, 제 3변주 1마디 ····· 21
[악보16] 제 3변주 1-9마디····· 22
[악보17] 제 4변주 1-3마디····· 23
[악보18] 제 4변주 9-16마디····· 24
[악보19] 제 5변주 1-9마디····· 25
[악보20] 제 6변주 1-6마디····· 26
[악보21] 제 7변주 1-5마디····· 27
[악보22] 제 7변주 15-18마디····· 27
[악보23] 제 8변주 1-6마디····· 28
[악보24] 제 9변주 1-3마디····· 29
[악보25] 제 10변주 1-7마디····· 30
[악보26] 제 11변주 1-7마디····· 31
[악보27] 제 12변주 1-14마디····· 32
[악보28] 제 13변주 1-3마디····· 33

dCollection @ chosun

[악보29] 간주곡 1-6마디 ····· 34
[악보30] 제 14변주 1-5마디 ····· 34
[악보31] 제 15변주 1-4마디 ····· 35
[악보32] 제 16변주 1-4마디 ····· 36
[악보33] 제 16변주 9마디, 17마디 ····· 36
[악보34] 제 17변주 1-5마디 ····· 37
[악보35] 제 17변주 20-23마디 ····· 38
[악보36] 제 18변주 1-11마디 ····· 39
[악보37] 제 19변주 1-2마디 ····· 40
[악보38] 제 20변주 1-7마디 ····· 41
[악보39] 제 20변주 21-23마디 ····· 41
[악보40] 코다 ····· 43

Collection @ chosun

ABSTRACT

A Study on S. V. Rachmaninoff's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

Jung, Da Woon
Advisor : Prof. Seo, Young Hwa
Department of Music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thesis is an analytic study on S. V. Rachmaninoff's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 which had been performed in the graduate recital for the master's degree of this wri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s variation's history, types and techniques. It also analyzes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 to identify important aspect for performance.

The variation is a technique by which a music changes variously while its certain theme or motive is consistent. The elements of variation are structure, harmony, melody, rhythm, tonality, meter, tempo, texture, contrapuntal, color, accompaniment and etc. The way to change or repeat these elements determines a variations' unique characteristic.

The Variation is divided into ornamental variation and a character variation depending on the musical contents. First, the ornamental variation has the character of the Theme and a bit of the rhythm change and inharmonic change or accompaniment change.

Second, the character variation is based on the change of the Theme, and

Collection @ chosun

gradually the theme is changed freely in terms of rhythm, tempo, structure, harmony, as well as tonality. In the Romantic period, it was a period of the character variation that changed the characters of the themes by using of free tonality and bold variation technique started from the late works of Beethoven. It usually express unique character or atmosphere.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 is Rachmaninoff's last solo piano work which was composed in 1931. The Theme is borrowed from <Violin Sonata Op.5 No.12 La Folía> by A. Corelli, and it is comprised of a Theme, 20 Variations, Intermezzo and Coda.

Each variations are organically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can be divided into 3 sections : First, from Theme to Var.7, second, from Var.8 to Intermezzo, third, from Var.14 to Coda.

It's appearing well the abundant imagination, lyric, various rhythms and chromatic melodies. Melody is characterized by sequential progress of modified motives. Italian 6th, Neapolitan 6th, parallel progress 5 and 8 degree, both augmented and diminished chords were used in a colorful manner.

As we have seen, Rachmaninoff showed his unlimited imagination and individual character through his work.

Collection @ chosun

Ⅰ. 서론

A. 연구 목적

변주곡은 이미 알려진 노래나 새롭게 작곡한 주제를 다양하게 변주하여 구성하는 음악형식이다. 흔히 반복되는 리듬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리듬이나 선율, 화성 등의 다양한 변화를 줌으로써 다양하고 다이내믹한 음악을 만들어가는 작곡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14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변주기법은 그 후 수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시도되었고, 라흐마니노프(S. V. Rachmaninoff, 1873-1943)도 변주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곡 활동을 전개하였다. 20세기 초 작곡가로 연주자로 최고 명성을 얻은 라흐마니노프의 변주곡은 오늘날에도 많은 연주자들을 위해 연주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이다.

본 연구는 라흐마니노프의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을 분석함으로써 라흐마니노프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고 연주자들이 그의 작품을 연주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B.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 방법에 의존하였다. 여기서 문헌조사라 함은 라흐마니노프 변주곡에 관한 각종 문헌, 학술 논문, 학위 논문, 저서 등을 의미한다.

본 논문을 통해 우선 변주곡이 어떻게 발달해왔는지 변주곡의 유형과 기법을 통해 고찰해본다. 변주곡이라는 작품을 통하여 주제를 가지고서 발전시킨 각각의 변주들의 특징과 서로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논해보는 것은 음악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또한 변주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변주곡의 특징과 각

Collection @ chosun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작품 고유의 특징적 요소를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작품 안에서 주제의 주된 선율을 어떻게 변화하고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연구하는 것이 이 작품에 다가가기 위한 바탕이 될 것이다. 그 후에 각 변주마다 조성, 선율, 리듬, 화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Ⅱ. 변주곡(Variation)에 대한 이해

A. 변주곡의 발달사

'변주'란 잘 알려진 노래나 새로 작곡한 주제를 다양하게 변주하여 구성하는 형식이다.[1] 즉 반복의 단조로움 대신 리듬, 선율, 화성 등 다양한 변화를 주는 작곡기법이다. 변주곡의 어원은 '변한다'라는 뜻의 라틴어 'Variatio'에서 유래하였으며[2],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발전해온 음악형식이다. 변주는 일종의 반복으로써 주제의 화음구조, 양식, 특징적인 성격 등은 유지하면서 리듬, 화성, 선율, 속도, 조성, 박자, 음색 등의 변화를 그 요소로 한다. 즉, 작곡가가 얼마나 다채롭게 변주기법을 펼치는지 음미할 수 있는 음악이다.

변주곡은 '주제와 변주'라는 하나의 독립된 악곡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또한 교향곡이나 소나타 등의 다악장 악곡 중에 한 개의 악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변주곡의 주제는 다양한 변화를 위해 그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야 하며, 16마디 또는 24마디 정도의 길이가 많다. 또한 선율, 리듬, 조성적인 면이 단순하고 뚜렷한 구조를 지녀야 한다. 작곡가가 직접 변주곡의 주제를 작곡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작곡가의 선율에서 빌려오거나 민요 등 기억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각 변주의 길이는 주제의 길이와 거의 같은 마디로 구성되는 것이 규칙적인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반복하거나 새로운 부분을 삽입, 부각시킴으로써 길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물론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짧게 변주될 수도 있다.[3]

다음은 변주곡의 발달과 변천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4]

---

1)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편, (2001). DICTIONARY OF MUSIC. 서울 : 도서출판 음악세계
2) 윤희정, (1993). 모짜르트와 베에토벤의 피아노 변주곡에 관한 비교분석 : 모짜르트 「작은별」에 의한 12개의 변주곡(K.265)과 베에토벤 「에로이카」 주제에 의한 변주곡(Op.35)을 통하여. 경희대학교 대학원
3) 김순란, 주성희, (2001). 음악 형식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4) Stanley, S. (ed.), (1980).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 London : Macmillan. p.537

Collection @ chosun

서양음악사에서는 14세기 말 작자 미상인 <파리의 풍차>가 가장 오래된 예로 알려져 있다.[5)]

르네상스 시대에는 기악곡이 독립되기 시작하여 이 시기의 변주곡은 종교적 혹은 세속적인 가곡이나 무곡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음형으로 장식 또는 수식하는 악곡을 하나로 묶은 변주적 조곡(Suite)이었다. 이 시기에는 그레고리안 성가를 비롯한 플레인송(Plainsong)이나 코랄을 기초로 한 변주곡이 나타났다. 대위법적 기법을 사용한 복잡한 양식으로서 원래는 오르간을 위해 작곡되었고 주제에 더욱 밀착되어 있다. 이 시기의 변주곡은 영국의 버지널리스트(Virginalist)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당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즐겨 연주한 소형 하프시코드의 명칭인 버지널(Virginal)에서 유래하여 궁정의 음악가들을 버지널리스트라고 불렀다. 당시의 버지널리스트는 버드(W. Byrd, 1540년경-1623), 기번즈(O. Gibbons, 1583-1625), 카베존(A. Cabezón, 1510-1566)등이 있다. 버지널 악파에 의하여 건반음악이 유행하면 서 변주곡은 고도의 수준에 달하였다.

또한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가곡이나 무곡의 선율을 기초로 하여 변형시킨 곡들을 하나로 묶은 변주모음곡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반(Pavan)[6)], 갈리아드(Galliard)[7)], 파사메조(Passamezzo)[8)], 살타렐로(Saltarello)[9)] 등 2-3개의 무곡을 묶어 함께 연주하였다. 1540년경부터 파사메조는 변주곡의 기본 형식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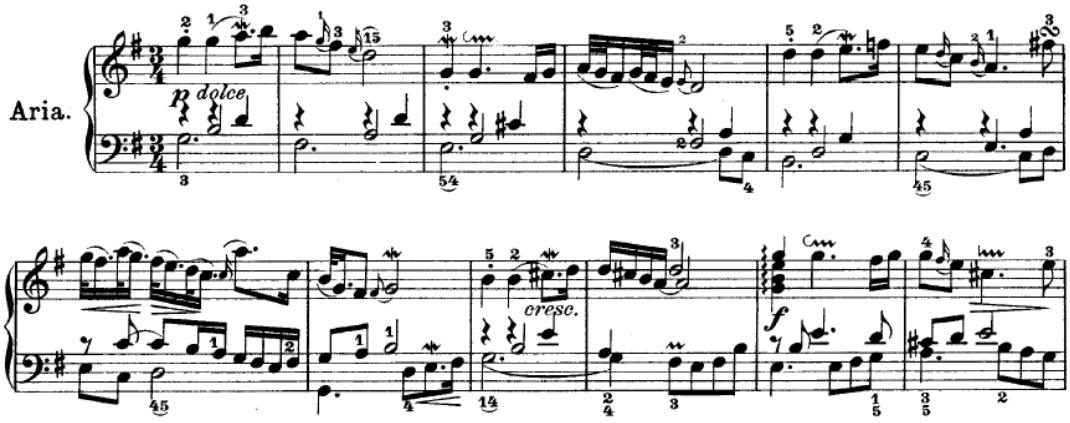
바로크 시대에는 '바로크 오스티나토[10)] 변주곡'이 생겨났다. 샤콘느(Chaconne)와 파사칼리아(Passacaglia)의 원시 형태들이 여기에 속한다. 기악곡들은 대개 한 악

---

5) 일신서적,(1994). 음악용어사전. 서울 : 일신서적출판사.
6) 파반(Pavan) : 이태리에서 기원한 단순한 2박자의 춤곡으로 12세기에 유행하였다.
7) 갈리아드(Galliard) : 이태리에서 발생한 3박자의 명랑한 춤곡으로 16세기에 프랑스, 스페인, 영국에서 널리 유행했다. 종종 따뜻하고 묵직한 파반느 뒤에 붙는다. 한 쌍의 무곡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것은 후대의 춤 모음곡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
8) 파사메쪼(Passamezzo) : 빠른 박자의 춤곡으로 파반과 유사하지만 더 빠르고 덜 진지한 16-17세기의 이태리 춤곡이다.
9) 살타렐로(Saltarello) : 16세기 이태리의 빠른 3박자 무곡으로 파사메쪼나 다른 짝수 박자 무곡 다음에 연주되었다.
10) 오스티나토(Ostinato) :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음형을 일컫는데 이 음형이 베이스에 사용될 경우 '바소 오스티나토'라고 한다. 리듬 또는 주법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에도 오스티나토라고 부른다.

Collection @ chosun

장의 길이가 길지 않지만 변주곡은 이에 비해 비교적 연주 시간이 길다. 이 시기는 변주곡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변주곡의 많은 발달을 가져왔다. 각 변주곡에서는 대위 선율이 변화되며, 성부에서 성부로 방황하는 것처럼 선율을 완전히 그대로 남겨두는 대위법적 특징이 있으며 화성은 철저히 남겨진 채 화성위의 선율은 뒤에 오는 변주곡에서 장식되는 단성형식이 있다.[11] 바로크 시대의 변주곡 중 바흐(J. S. Bach, 1685-1750)가 만년에 작곡한 <Goldberg Variations, BMW.988>은 이 시대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악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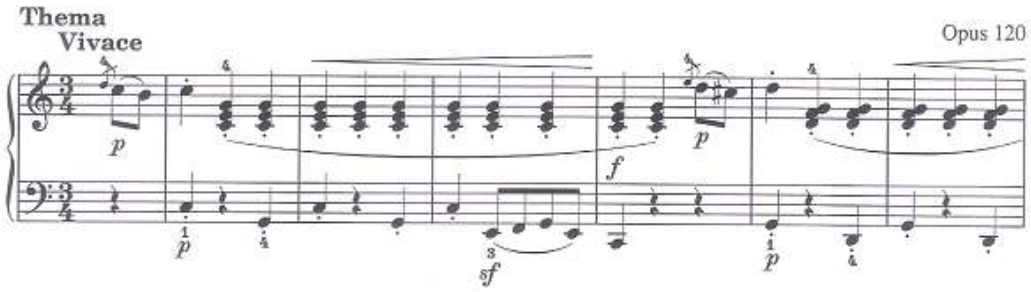
[악보 1] J. S. Bach <Goldberg Variations, BMW.988> Aria 1-12마디

1775년경부터 피아노가 하프시코드를 대체하기 시작하여 바로크시대와 달리 이 시기의 변주곡들은 순수하게 피아노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 시기의 변주곡은 '주제와 변주(Theme & Variations)'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주제가 화성적으로 연결된 선율로서 각 변주들은 주제의 형식과 화성구조를 따른다. 하이든(F. J. Haydn, 1732-1809), 모차르트(W. A. Mozart, 1756-1791), 베토벤(L. v. Beethoven, 1770-1827)은 많은 변주곡을 작곡하였으며 당시에 유행하던 선율이나 자신이 만든 작품의 선율을 주제로 사용하였다. 형식은 바로크시대 보다 단순해졌으며 교향곡이나 실내악곡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11) 허방자 역,(1988). 서양음악발달사. 서울 : 삼호출판사

Collection @ chosun

고전적 장식 변주의 변형으로 19세기 성격 변주곡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장식 변주곡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며, 각 변주들이 주제의 성격을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에 걸쳐 변형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12] 베토벤의 <Diabelli Variations, Op.120>은 성격변주곡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각 변주에서는 왈츠풍의 주제와 전혀 다르게 행진곡이나 다른 성격으로 변한다. [악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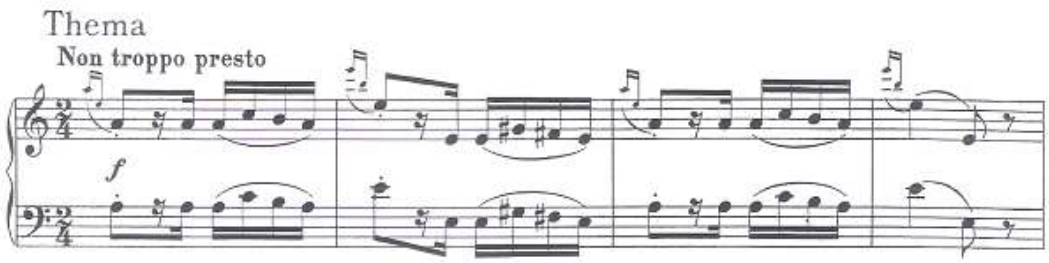


[악보2] L. V. Beethoven <Diabelli Variations, Op.120> 주제 1-6마디

19세기에는 바로크의 오스티나토 변주곡에서 파생되어 '바소 오스티나토 변주곡'이 생겨났다. 바로크 변주곡과 비교되는 점은 오스티나토 변주곡의 대위법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과 성격 변주곡에서의 다양하게 변화하는 분위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는 브람스(J. Brahms, 1833-1897), 슈베르트(F. Schubert, 1797-1828), 슈만(R. Schumann, 1810-1856), 쇼팽(F. Chopin, 1810-1849) 등에 의해 많은 변주곡이 작곡되었다. 조성은 자유롭고 대담한 변주기법이 사용되었다. 브람스는 <Variations on Theme by Paganini, Op.35>등 여러 개의 변주곡을 작곡하였다. [악보3]

12) 전미영 · 양소영, (2006). 로시니 주제에 의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 연구. 서울 : 낭만음악사

Collection @ chosun



[악보3] J. Brahms <Variations on Theme by Paganini, Op.35> 주제 1-4마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변주곡은 성격 변주곡에서 영향을 받은 자유로운 형태의 변주곡이 작곡되었다. 이러한 변주곡은 주제와 화성의 구조가 불완전하며, 각 변주들은 주제와 연관성을 잃어간다. 또한 독립성을 지니고 길이도 일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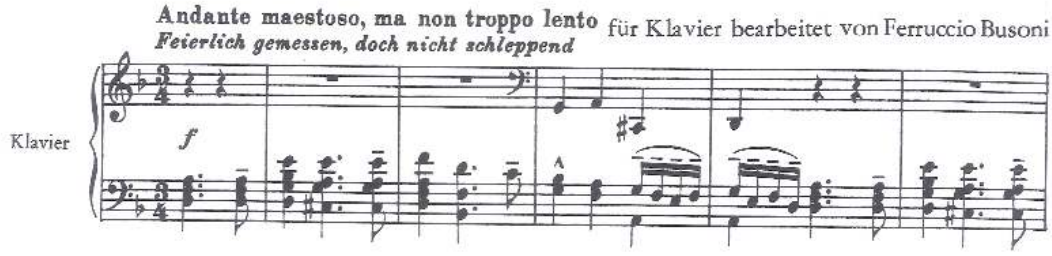
B. 변주곡의 유형

변주곡은 샤콘느(Chaconne)와 파사칼리아(Passacaglia) 그리고 주제와 변주(Theme & Variations)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샤콘느는 느린 3박자의 스페인 무곡 형식으로 17세기 초에 아메리카로부터 유입되었다. 보통 8마디 이내의 바소 오스티나토 위에 연속되는 변주로 이루어진다.[13] 바흐의 <Chaconne, BWV 1004>는 주제가 처음부터 화성구조로 제시되는 만큼 화성의 구조를 중시하며 때로는 화성이나 조성이 바뀔 수 있다. [악보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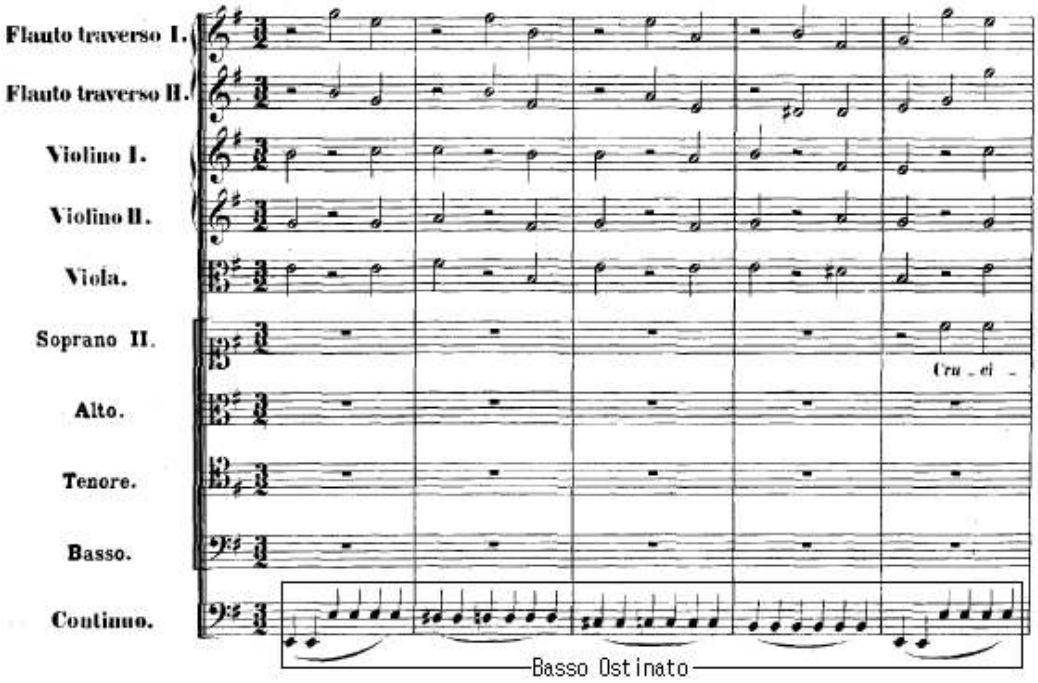
13)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편, (2001). DICTIONARY OF MUSIC. 서울 : 도서출판 음악세계

Collection @ chosun



[악보4] J. S. Bach <Chaconne, BWV 1004> 1-6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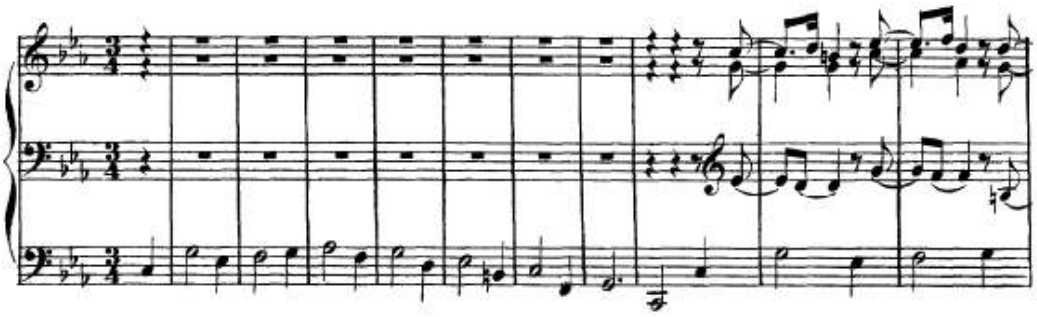
샤콘느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반복의 흐름 속에서 통일과 변화를 함께 만드는 것과 바소 오스티나토를 설정하여 다른 성부가 대위적으로 변주를 맡게 하는 것이다. [악보5]



[악보5] J. S. Bach <Mass in b minor, BWV 232> 바소 오스티나토

Collection @ chosun

둘째, 파사칼리아는 샤콘느처럼 느린 3박자 음악이다. 8마디 정도의 주제가 베이스에서 반복되는 동안 상성부에서는 변주가 계속 진행된다. 주제를 대위법적으로 변주하며 파사칼리아와 샤콘느의 다른 점은 바소 오스티나토가 있다는 것이다. [악보6]



[악보6] J. S. Bach, <Passacaglia und Fugue in c minor, BWV 582>

셋째, 주제와 변주는 일반적인 유형으로 하나의 주제가 처음에 분명히 나타나고, 그 후에 그것을 계속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쓰여진 곡이나 장르를 일컫는다.[14]16세기 이후에 등장하였으며 제목이 붙기도 한다. 처음 몇 개의 변주는 주제와 비슷하지만 점차 주제와 멀어지며 자유로운 형태로 전개되어 간다.

C. 변주의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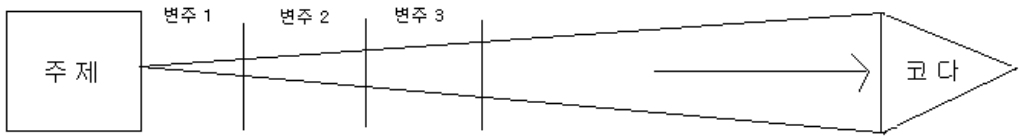
변주곡은 다양한 변주 기법을 가지고 있으며 변주 기법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음악으로써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변주의 수가 더해 갈수록 점진적인 고조의 느낌을 주어, 특히 최후의 변주에 그 클라이막스를 두는 것이며, 둘째는 각

14)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편, (2001). DICTIONARY OF MUSIC 서울 : 도서출판 음악세계

Collection @ chosun

변주가 상호 대비를 갖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15] 주제와 변주의 배열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주제와 변주의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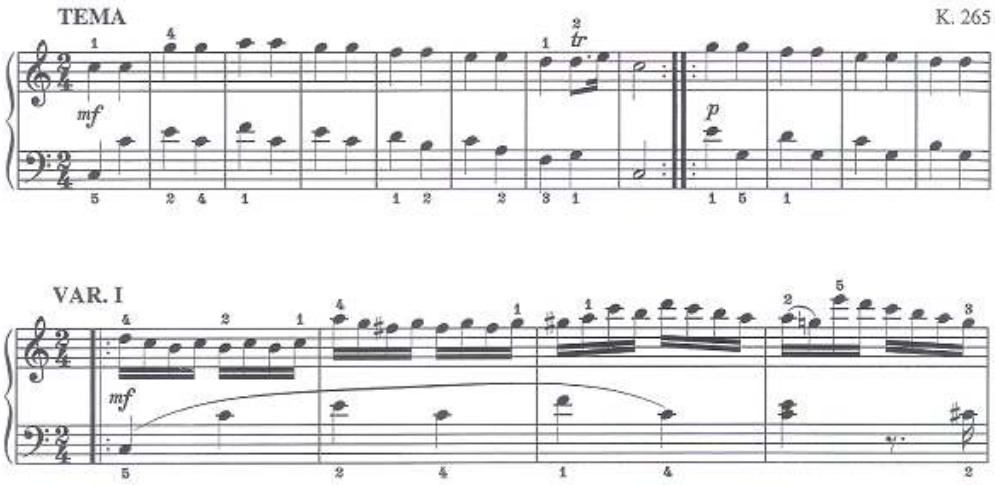
1. 장식 변주곡(Ornamental Variation)

장식 변주곡은 주제의 선율을 유지하면서 주제의 선율과 화성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 각 부분의 악절과 마디수가 주제의 원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켜져야 한다. 주제의 화성적 윤곽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선율선이 쉽게 드러나도록 리듬을 변화시키거나 비화성음 등을 사용한다.

장식 변주곡은 선율, 리듬, 박자, 조성, 속도, 음색 등의 변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제의 원형은 유지하면서 주제의 선율이나 반주형태를 변주하는 선율 변주, 주제의 리듬을 바꾸는 리듬 변주, 박자를 바꾸는 박자 변주, 조성을 바꾸는 조성 변주가 있다. 이 때 장조는 단조로, 단조는 장조로 바뀐다. 또한 주제의 속도에 변화를 주어 속도, 리듬, 선율이 함께 변하는 속도 변주, 관현악곡에서 다이내믹이나 음역, 주법 또는 악기편성 등을 바뀌어 음색을 변화시키는 음색 변주 등이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모차르트의 <12 Variations on the song “Ah, vous dirae-je, Maman", K.265>이 있다. [악보7]

15) 전미영 · 양소영, (2006). 로시니 주제에 의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 연구. 서울 : 낭만음악사

Collection @ chosun



[악보7] W. A. Mozart
<12 Variations on the song "Ah, vous dirae-je, Maman", K.265>
주제 1-12마디, 제 1변주 1-4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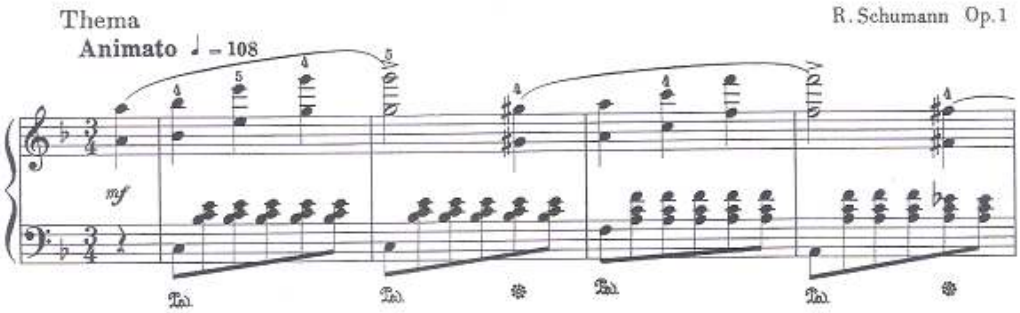
2. 성격 변주곡(Character Variation)

주제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변주하지 않고 주제에 포함된 요소인 선율, 리듬, 화성, 구조, 속도 등의 성격을 변화시켜 각 변주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다. 주제의 마디 수나 단락에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 변주곡'이라고도 한다. 성격변주는 주제의 극단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형식인데 왈츠, 캐논, 푸가 등의 형식으로 변화하기도 하며 혹은 주제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

장식 변주곡이 주제의 외형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라면 성격 변주곡은 주제의 내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성격변주는 각 악곡마다 주제의 분위기나 음악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변주가 진행될수록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한다. 17세기 변주곡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지만 특히 베토벤의 중기 이후 낭만파의 멘델스존, 브람스 등의 낭만파 작곡가들이 주로 작곡하였으며 그 예로 슈

Collection @ chosun

만의 <Abegg Variation, Op.1>이 있다. [악보8]



[악보8] R. Schumann <Abegg Variation, Op.1> 주제 1-4마디

Collection @ chosun

Ⅲ.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 분석

A. 작품 배경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의 후기 낭만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다. 그의 작품에서는 동시대의 다른 작곡가들인 스크리아빈(A. Scriabin, 1871-1915), 스트라빈스키(I. Stravinsky, 1882-1971), 쇤베르크(A. Schöenberg, 1874-1951)등의 현대 음악적 경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라흐마니노프는 인간 내면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낭만주의 이념을 계승하였으며 19-20세기에 이러한 작곡 기법은 보기 드믄 일이었다.

작곡기법에서는 시대와 다른 방식이지만 그의 음악은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피아노 음악은 피아노 문헌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작품 속의 미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 볼 수 있겠다. 라흐마니노프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형화 된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1918년 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을 중심으로 연주활동을 하며 이 시기의 작품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왕성한 연주활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러시아를 사랑했던 라흐마니노프가 조국을 떠난 후 창작의 배경이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해 작곡에 대한 열의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이다.[16)]

이 곡은 1931년 프랑스에서 작곡된 마지막 피아노 독주곡으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크라이슬러(Fritz Kreisler, 1875-1962)에게 헌정되었으며 주제는 코렐리(A. Corelli, 1653-1713)의 <Violin Sonata Op.5 No.12 La Folía>에서 주제 선율을 가져온 것이다.

라흐마니노프는 2개의 변주곡을 작곡하였는데 쇼팽의 <전주곡(Prélude) Op.28 No.20>을 사용하여 만든 <Variations on a Theme of Chopin, Op.22>와

16) 김인심 역, (1995). 라흐마니노프. 서울 : 중앙일보사.

Collection @ chosun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이다. 먼저 작곡한 <Variations on a Theme of Chopin, Op.22>보다 이 곡이 더욱 주제를 상상력있게 다루었으며 생동감 있는 리듬과 화성의 사용으로 인해 그의 실험적 정신을 엿볼 수 있다.

B. 전체 구조

이 작품은 성격변주곡으로서 주제(Theme)와 20개의 변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 13변주와 제 14변주 사이에 간주곡(Intermezzo)이 있고, 제 20변주 뒤에 코다(Coda)가 첨가된다.

이 곡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부분은 주제 - 제 7변주, 제 2부분은 제 8변주 - 간주곡, 제 3부분은 제 14변주 - 코다로 이루어져 있다.

제 1부분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주제가 잘 드러나며 Andante로 느리게 시작하여 Vivace로 아주 빠르게 끝난다. 주제부터 제 7변주까지의 조성은 d 단조, 제 5변주까지의 박자는 3/4박자로 동일하다. 마디 수는 16마디로 제 6변주까지 동일하며 제 7변주에서 18마디로 늘어난다. 제 2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해 제 7변주는 4마디의 종결구(Codetta)가 붙는다.

제 2부분은 빠르기도 다양하며 조성은 같으나 변박이 자주 등장한다. 반음계적 화성진행이 두드러지고 마디수도 자유롭게 변한다. 제 1부분과 마디수를 비교하면 제 11변주를 제외하고 모두 불규칙하다. 간주곡은 제 2부분을 마무리 짓고 제 3부분으로 가기 위한 연결구이다.

제 3부분이 시작하는 제 14변주에서는 느리게 시작하여 주제의 선율이 D♭장조로 바뀌어 재현된다. 박자가 자주 변하며 제 17변주에서 제 20변주로 갈수록 점점 복잡해진 리듬과 다양한 변주기법이 사용된다. 코다에서는 주제선율이 다시 한 번 재현되면서 템포와 조성이 돌아오게 된다.

전체적인 구성은 <표 2>와 같다.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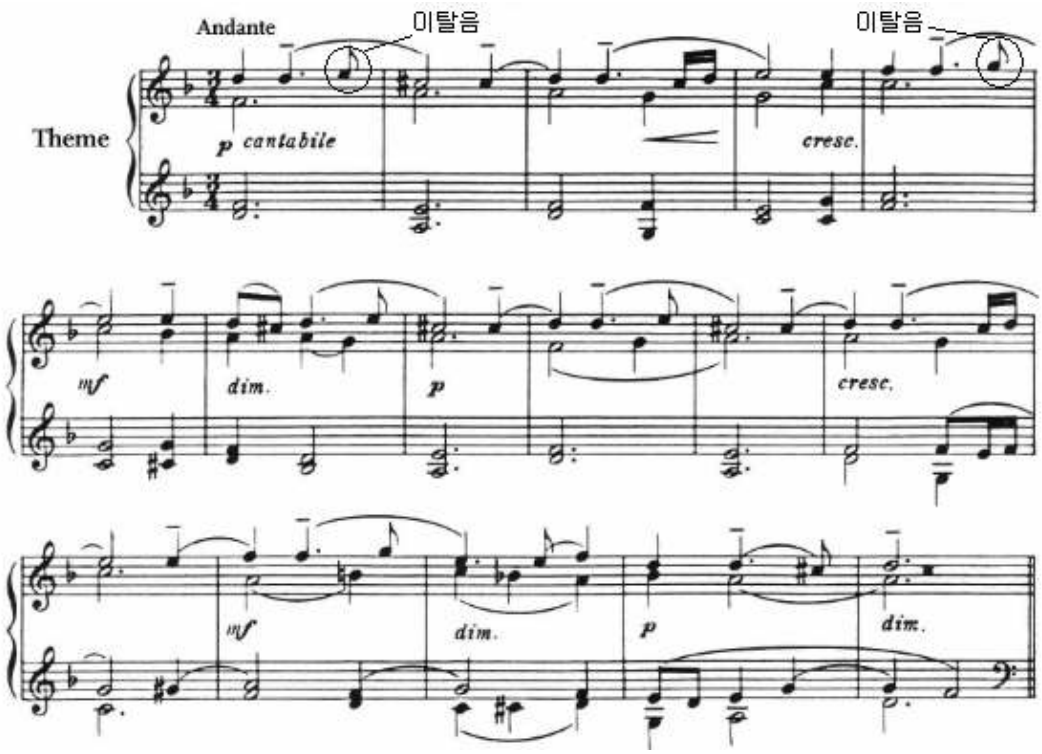
<표 2>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의 전체 구성

	변주	빠르기	조성	마디수
제 1 부분	주제(Theme)	Andante	d단조	16(8+8)
	제 1변주	Poco più mosso	d단조	16(8+8)
	제 2변주	L'istesso tempo	d단조	16(8+8)
	제 3변주	Tempo di Menuetto	d단조	16(8+8)
	제 4변주	Andante	d단조	16(8+8)
	제 5변주	Allegro	d단조	16(7+9)
	제 6변주	L'istesso tempo	d단조	16(8+8)
	제 7변주	Vivace	d단조	18(8+6+4)
제 2 부분	8	Adagio misterioso	d단조	15(7+8)
	9	Un poco più mosso	d단조	19(10+9)
	10	Allegro scherzando	d단조	25(9+9+7)
	11	Allegro Vivace	d단조	16(8+8)
	12	L'istesso tempo	d단조	23(10+13)
	13	Agitato	d단조	17(8+9)
	간주곡 (Intermezzo)	A Tempo rubato	d단조	13(6+6+1)
제 3 부분	14	Andante(come prima)	D♭장조	16(8+8)
	15	L'istesso tempo	D♭장조	26(12+14)
	16	Allegro Vivace	d단조	15(8+7)
	17	Meno mosso	d단조	23(11+8+4)
	18	Allegro con brio	d단조	16(8+8)
	19	Più mosso Agitato	d단조	17(8+6+3)
	20	Più mosso	d단조	27(8+8+11)
	코다(Coda)	Andante	d단조	17(8+9)

dCollection @ chosun

C. 주제와 변주

1. 주제(T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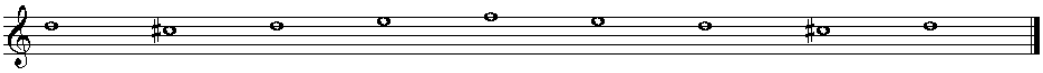


[악보9] S. V. Rachmaninoff,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 주제 1-16마디

이 곡의 주제는 서정적인 선율과 간결한 구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8마디까지 제시하였다. 주제는 Andante로 느리게 시작하며 조성은 원곡과 같이 d단조이지만 4마디에서 F장조로 바뀌고 또다시 6마디에서 d단조, 12마디에서 F장조, 14마디에서 d단조로 바뀌어 원조로 끝난다. 3/4박자, 16마디(8+8)구성의 두 도막 형식이다. [악보 9]

Collection @ chosun

선율은 좁은 음역 안에서 순차진행을 위주로 한다. [악보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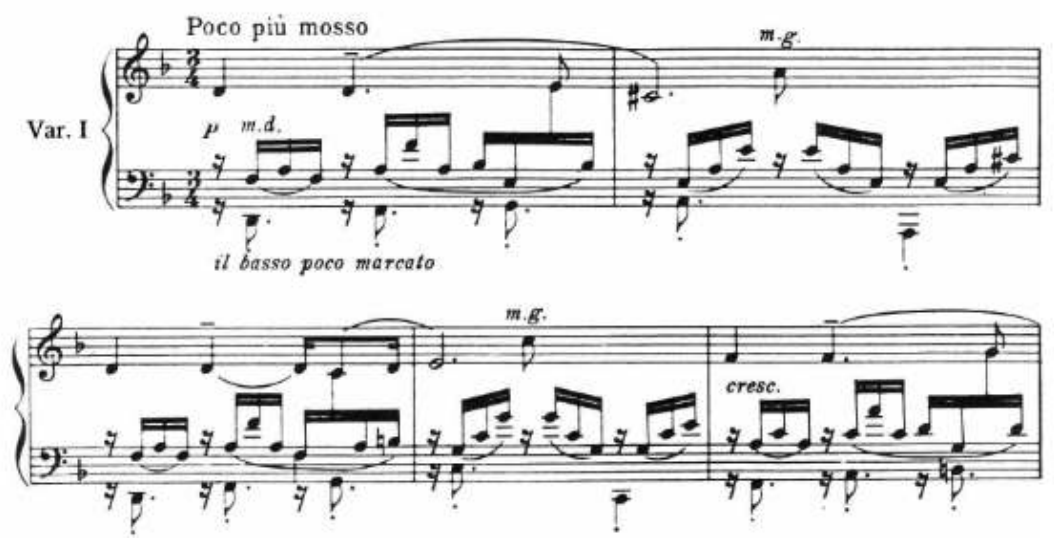
[악보10] 주제의 순차진행

둘째 박에 악센트가 붙는 ♩ ♩. ♪ | 𝅗𝅥 ♩ 리듬이 지배적이다. 화성은 i－V 진행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반종지함으로써 d단조의 우울한 분위기를 한층 더 느낄 수 있게 한다. 이탈음(Escape Tone)과 계류음(Suspension)이 비화성음으로서 자주 등장한다.

2. 제 1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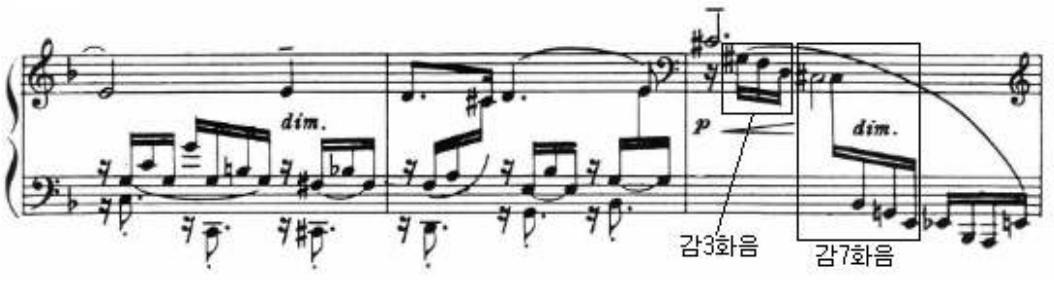
제 1변주는 선율에 의한 변주이다. Poco più mosso로 주제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연주한다. 조성은 d단조, 마디는 16마디(8+8)구성으로 주제와 동일하다. 주제선율은 오른손에 분산화음(Arpeggio) 형태로 나타나고, 당김음(Syncopation) ♫ 이 일관되게 사용되어 긴장감을 조성한다. 왼손의 베이스는 비화성음을 테누토로 강조하여 순차진행 한다. [악보11]

Collection @ chosun



[악보11] 제 1변주 1-5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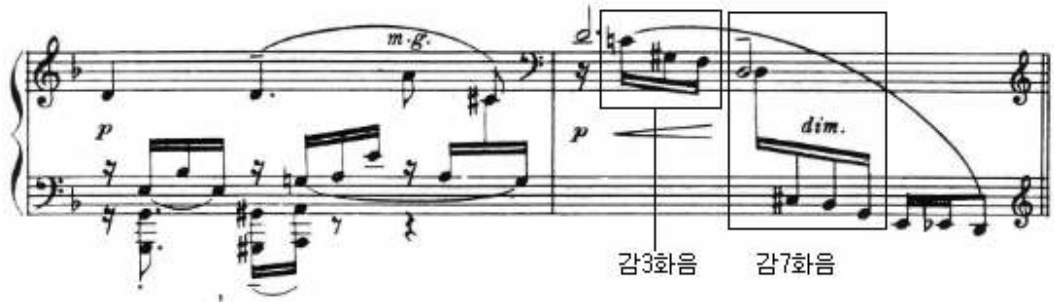
화성은 주제와 같이 i 와 V 위주의 진행을 하고 8마디에서는 감3화음과 감7화음이 분산되어 나타난다. [악보12]



[악보12] 제 1변주 6-8마디

9마디에서는 전반부 8마디를 반복하는데 왼손의 베이스가 반음계적 진행을 함으로써 선율이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16마디에서는 8마디처럼 감3화음과 감7화음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악보13]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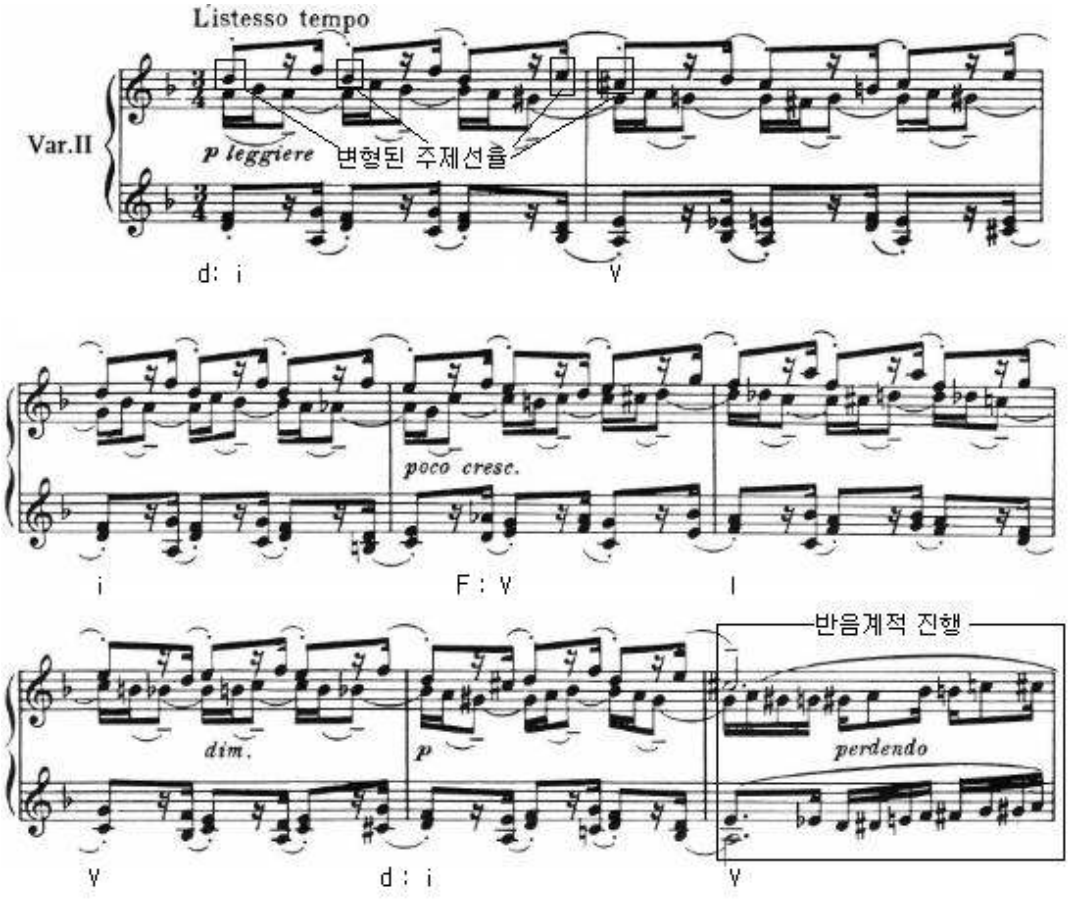


[악보13] 제 1변주 15-16마디

3. 제 2변주

제 2변주는 선율과 리듬에 의한 변주이다. L'istesso tempo로 제 1변주와 같은 빠르기로 연주하며 d단조, 16마디(8+8)구성이다. 스타카토로 이루어진 주제 선율이 오른손 상성부에 나타나며 부점 리듬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외성과 내성 모두 거의 도약 없이 순차진행 한다. 외성에서는 리듬이 반복되고, 내성에서는 리듬 속에 보조음(Neighboring Tone)과 계류음이 반음계적 진행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4마디에서는 잠시 F단조로 전조되었다가 다시 d단조로 돌아온다. 9마디에서는 양손 모두 반음계적 진행을 하며 후반부로 넘어간다. [악보14]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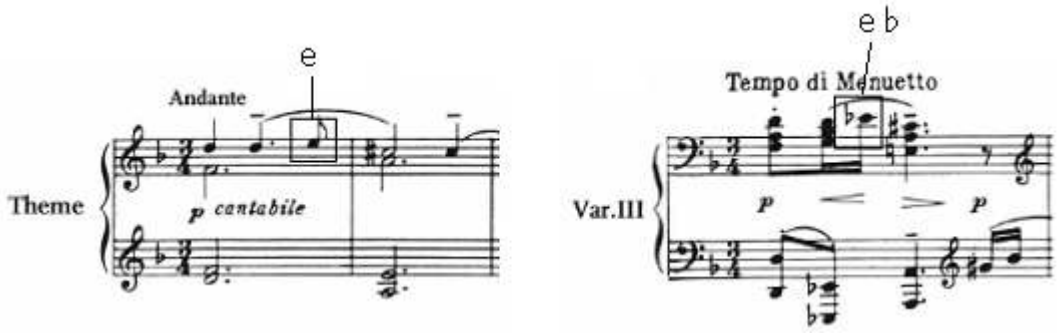
[악보14] 제 2변주 1-8마디

4. 제 3변주

제 3변주는 선율과 리듬에 의한 변주이다. 빠르기는 Tempo di Menuetto, 조성은 d단조 이며 중간에 C장조 - F장조 - d단조로 전조되어 주제와 거의 비슷하나 g단조, B♭장조도 나타난다. 16마디(8+8) 구성이며 오른손의 상성부에 비교적 명확한 주제 선율이 들어있다. 주제의 리듬이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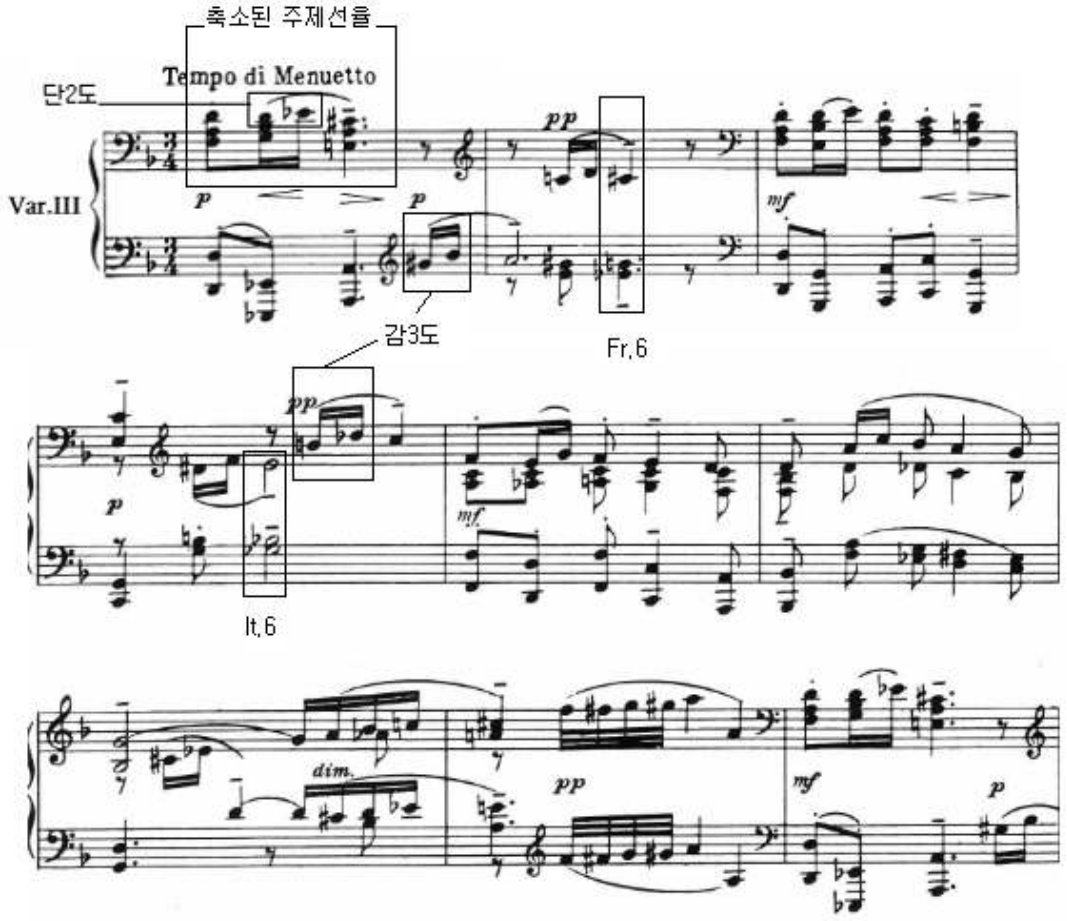
리듬으로 변형되었다. 1마디의 주제 선율이 당김음을 사용한 화음으로 긴장하게 만든다면 2마디에서는 단선율로 메아리치듯 이완된 느낌을 준다. 주제에서 d음과 e음의 장2도 선율이 e♭으로 바뀌면서 단2도로 바뀌어 더욱 어두운 느낌으로 전개된다. [악보15]



[악보15] 주제 1-2마디, 제 3변주 1마디

화성진행은 전반부 1-8마디는 주제의 화성진행을 기본으로 진행되지만 후반부 9-16마디에서는 반음계적 화성진행을 보인다. 또한 Fr.6과 It.6 등의 사용으로 화성적인 색채감을 표현하였다. 화성이 주제보다는 자주 변하며 단2도와 감3화음의 빈번한 사용으로 어두운 느낌을 자아낸다. [악보16]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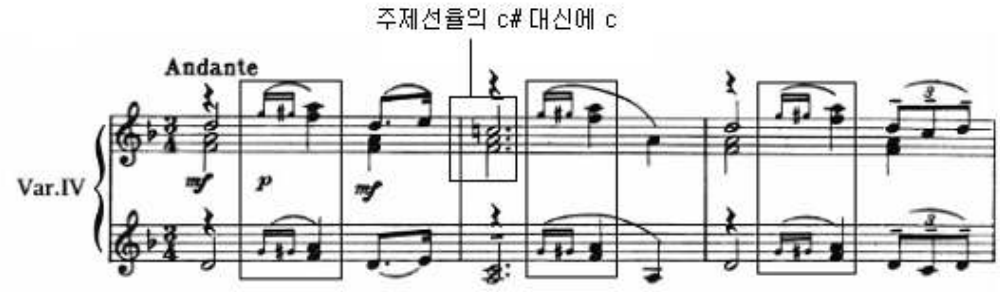
[악보16] 제 3변주 1-9마디

5. 제 4변주

제 4변주는 선율, 리듬, 색채에 의한 변주로서 꾸밈음을 장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주제와 동일하게 빠르기는 Andante, 조성은 d단조이며 16마디(8+8)구성이다. 주제가 ♩ ♩. ♪ | 𝅗𝅥 𝅘𝅥 리듬을 사용한 것과 달리 제 4변주는 𝅗𝅥 𝅘𝅥𝅮𝅘𝅥𝅮 리듬을 사용하여 첫 박을 강조하고 있다. 2마디에서 d단조의 이끔음(Leading Tone)인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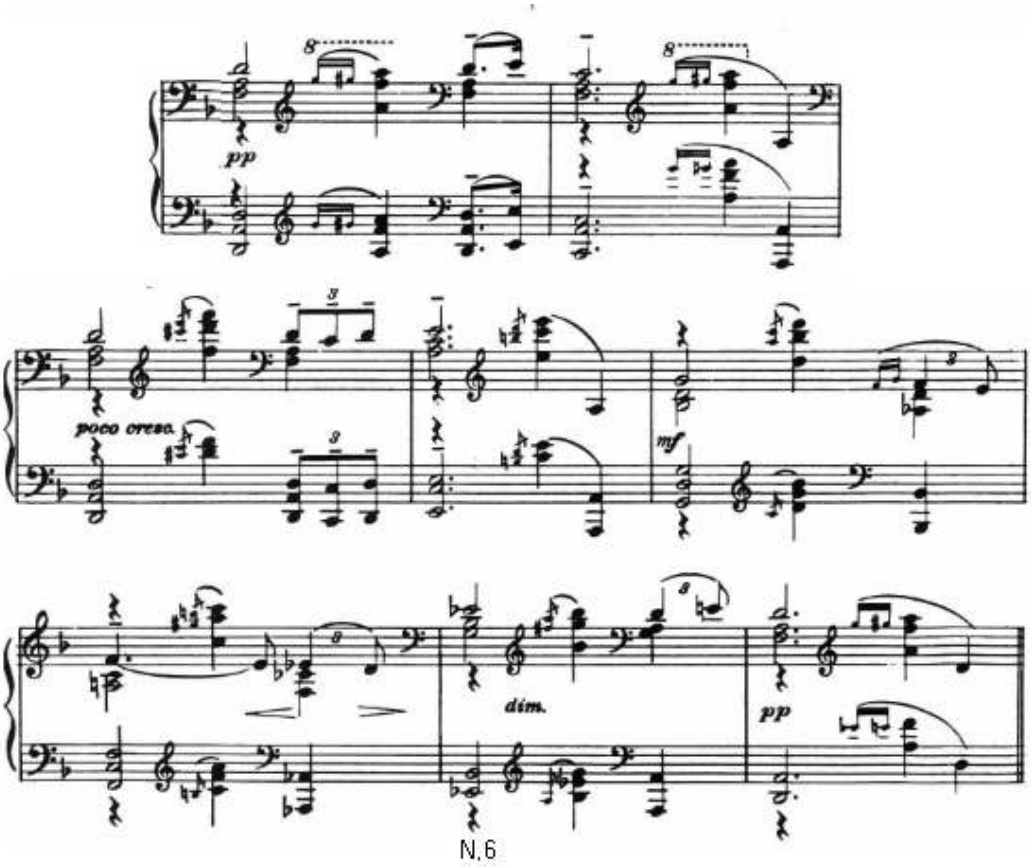
$c^{\#}$음이 c음으로 변화됨으로써 조성감이 약화되고 있다. [악보17]



[악보17] 제 4변주 1-3마디

후반부가 시작되는 9마디부터는 음역이 옥타브로 확대되어 음향이 풍부해진다. 14-16마디에서 반음계적 화성진행이 나타나며 15마디에서는 N.6가 사용되었다. [악보18]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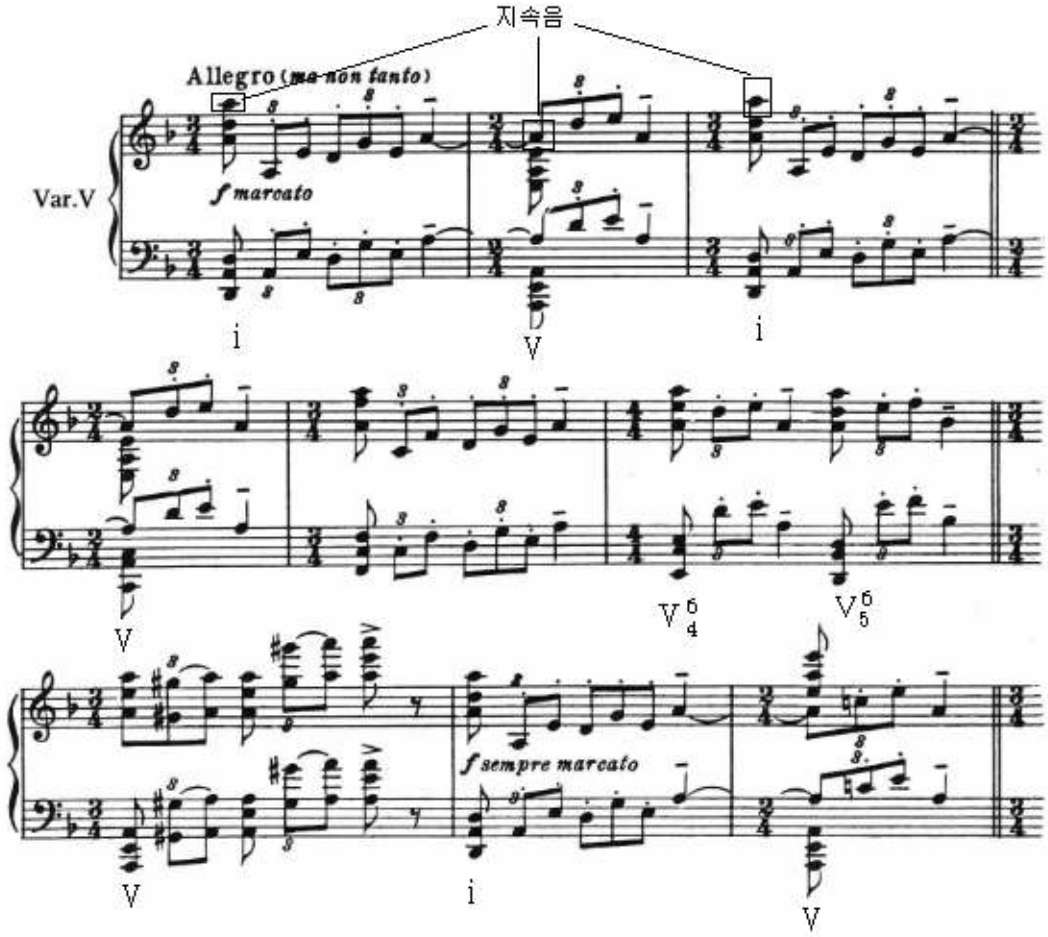
[악보18] 제 4변주 9-16마디

6. 제 5변주

제 5변주는 리듬과 박자에 의한 변주이다. 주제부터 제 4변주까지의 느린 빠르기에서 Allegro로 바뀌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조성이 d단조로 동일한 것을 제외하고 많은 변화를 주었다. 셈여림 또한 *p*에서 *f*로 바뀌었고, 이전의 16마디(8+8)구성과 다르게 16마디(7+9)의 불규칙한 구성으로 바뀌었다. 박자는 3/4 – 2/4 – 3/4 – 2/4 – 3/4 – 4/4 – 3/4 – 2/4 – 3/4 – 2/4 –3/4 – 2/4 – 3/4박자로 16마디에서 이처럼 12번의 잦은 변화를 보인다. 주제선율도 순차진행 위주에

Collection @ chosun

서 도약 위주로 바뀌었으며, 셋잇단음표와 4분음표가 주된 리듬형이다. 3화음의 3음을 생략하고 d 단조의 이끔음인 c# 음이 c음으로 바뀌어 단조의 느낌이 약화되었다. 1-9마디의 상성부에서는 a음이 d단조의 딸림음(Dominant)으로서 지속음(Pedal Tone)역할을 한다. 화성진행은 주제처럼 i-V화음이 주를 이룬다. [악보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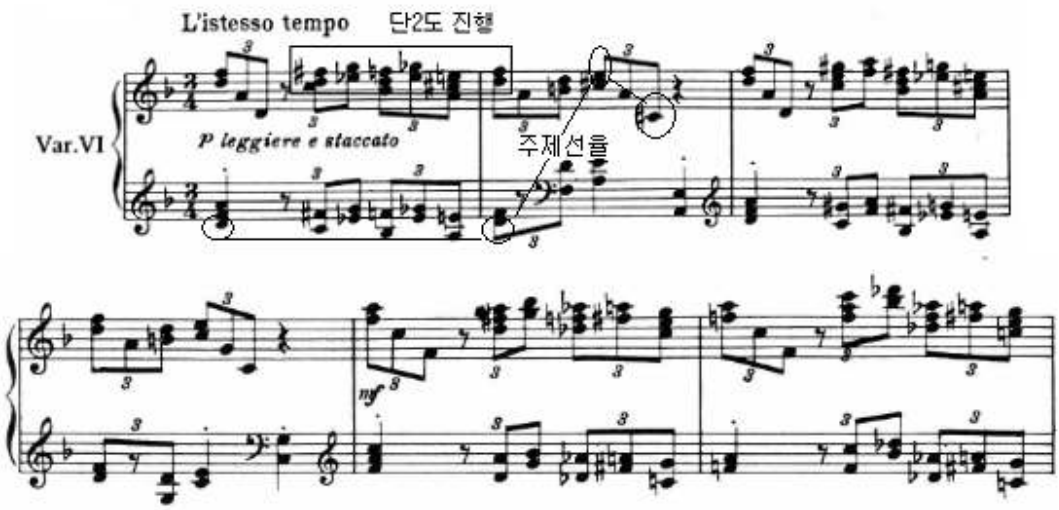


[악보19] 제 5변주 1-9마디

Collection @ chosun

7. 제 6변주

제 6변주는 리듬과 선율에 의한 변주이다. L'istesso tempo로 제 5변주처럼 빠르지만 셈여림은 *p*, 16마디(8+8)구성으로 다시 주제 중심으로 돌아갔다. 1마디부터 오른손 상성부에서는 단2도의 반음계적 반복진행(Sequence)[17]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제 5변주에서는 셋잇단음표가 단선율의 도약진행을 하는 반면에 이 곡은 3화음의 순차진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3화음은 장3화음, 증3화음 등이 사용되었다. [악보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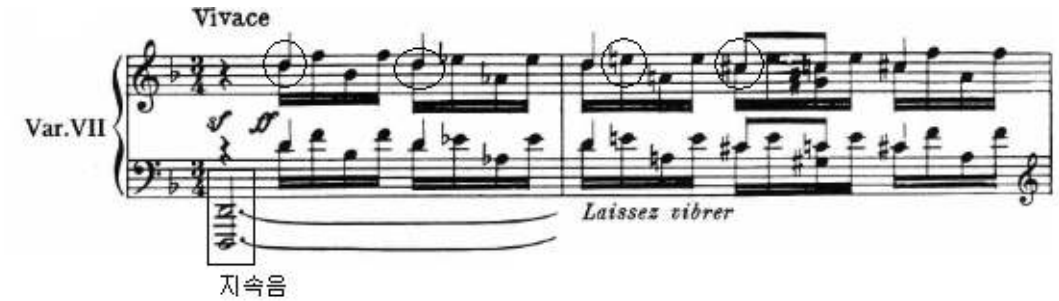
[악보20] 제 6변주 1-6마디

8. 제 7변주

17) 반복진행(Sequence) : 하나의 짧은 악구를 같은 음형으로, 다른 음높이(주로 2도 위나 아래, 3도 위나 아래)로 2회 이상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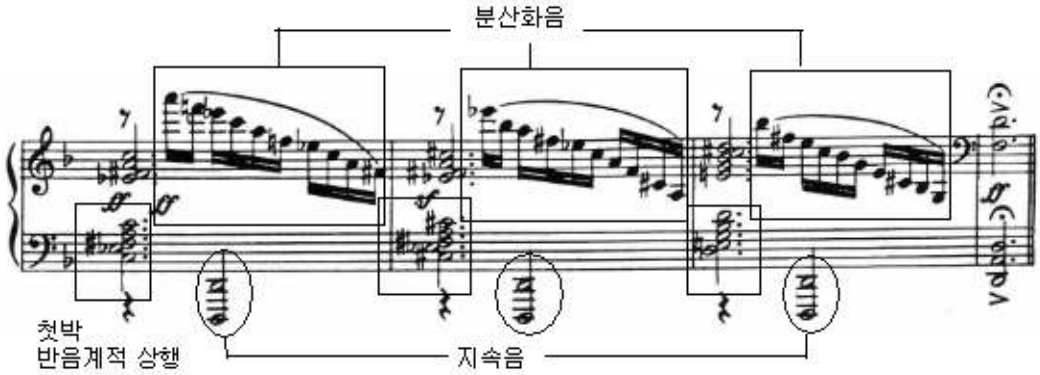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제 7변주는 선율과 리듬에 의한 변주이다. 제 1부분의 마지막 변주로서 지금까지의 변주 중에 가장 빠른 Vivace를 지녔다. 마디수가 18마디(8+10)구성으로 1-14마디의 주제선율과 15-18마디의 종결구로 이루어져있다. 한 옥타브 간격으로 오른손과 왼손이 진행을 하면서 리듬이 오른손과 왼손에 동형진행 되고 있다. 3-5마디에서는 반음계적으로 상행하는 동형진행이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순차진행 한다. 반음계적 화성진행을 하면서 조성감을 확실히 하기 위해 d단조의 으뜸음(Tonic)인 d음을 지속음으로 사용한다. [악보21]



[악보21] 제 7변주 1-5마디

종결구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이 반음계적으로 상행한다. 첫 박을 펼쳐 분산화음으로 사용하였다. [악보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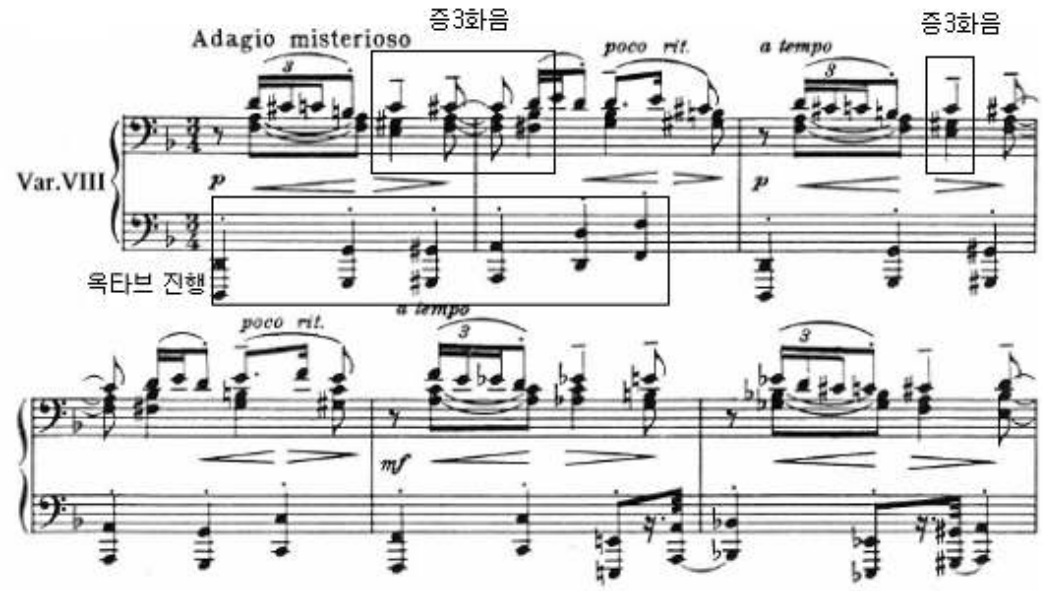


[악보22] 제 7변주 15-18마디

Collection @ chosun

9. 제 8변주

제 8변주는 색채와 리듬에 의한 변주이다. 제 2부분이 시작되는 제 8변주는 빠른 빠르기에서 Adagio misterioso로 바뀌며 증화음에 의한 신비한 느낌을 자아낸다. 15마디(7+8)로 구성으로 반음계적인 순차진행을 일관한다. 주제와는 다른 선율형태를 지녔으며 당김음, 양손의 주고 받는 리듬, 왼손의 옥타브 진행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악보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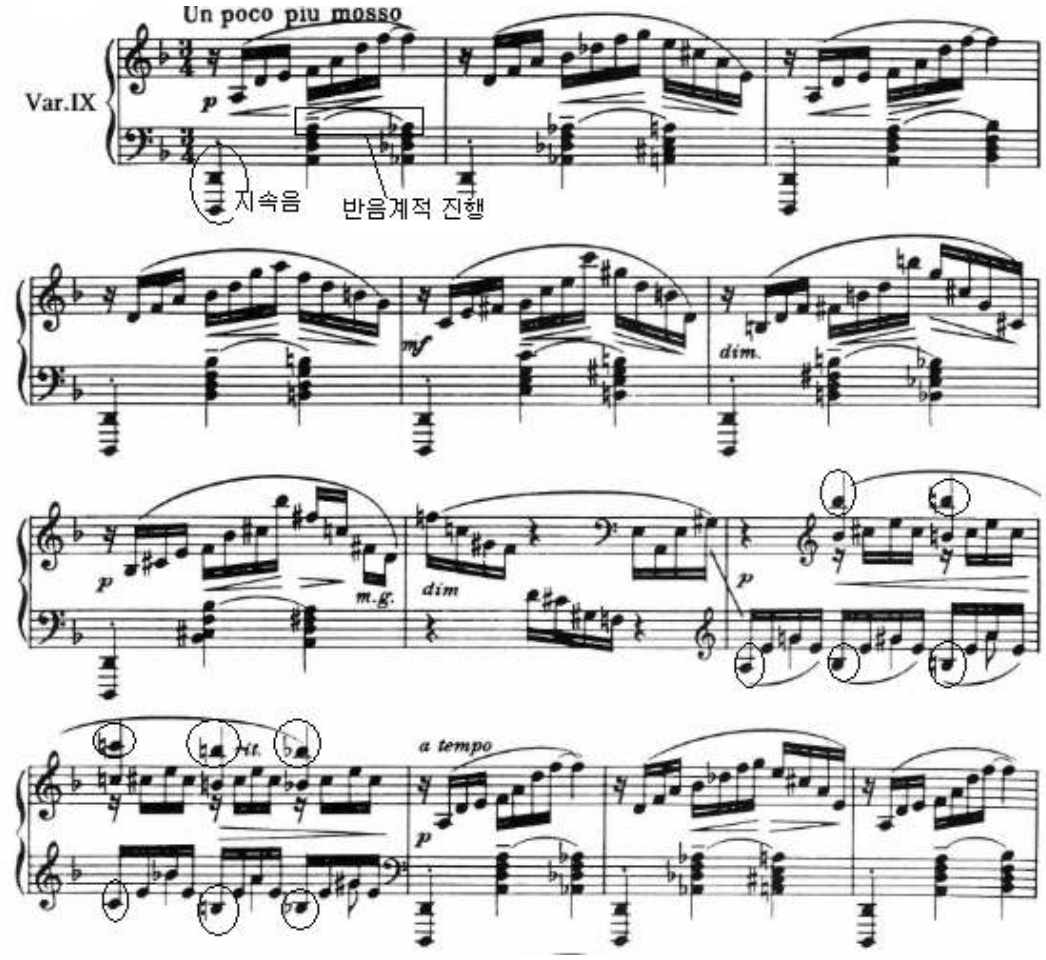
[악보23] 제 8변주 1-6마디

10. 제 9변주

제 9변주는 리듬에 의한 변주이다. 템포는 Un poco più mosso로 약간 빨라

dCollection @ chosun

지고 19마디 (10+9)구성으로 전반부와 후반부 각각 2마디의 경과구를 갖는다. 왼손에서는 d음이 지속음으로 사용되고 2마디부터 시작된 왼손의 반음계적 진행이 7마디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진행은 경과구인 9-10마디, 18-19마디에서 왼손의 분산화음속에 축소되어 나타난다. [악보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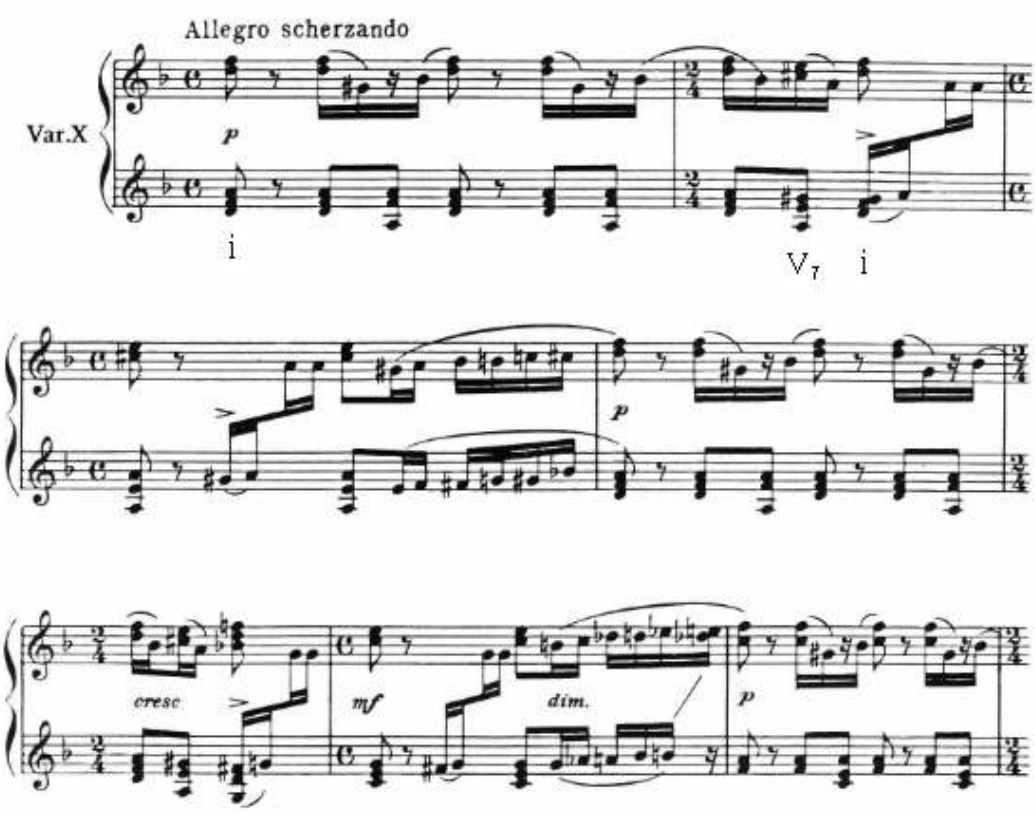


[악보24] 제 9변주 1-3마디

Collection @ chosun

11. 제 10변주

제 10변주는 박자와 리듬에 의한 변주이다. Allegro Scherzando로 빠른 빠르기를 지니며 잦은 변박이 일어난다. 1-16마디까지는 4/4 - 2/4박자가 번갈아 이어지다가 17마디부터는 3/4 - 4/4 - 3/4 - 2/4 - 3/4박자로 바뀐다. 28마디(11+14) 구성으로 12마디의 첫 박까지는 주제의 화음에 의한 변주이고 그 이후에는 대조적으로 반음계적 진행을 한다. 주제와 마찬가지로 i, V화음이 왼손의 근음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오른손은 i도 화음의 3음인 f음과 V화음의 5음인 e음이 사용되어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악보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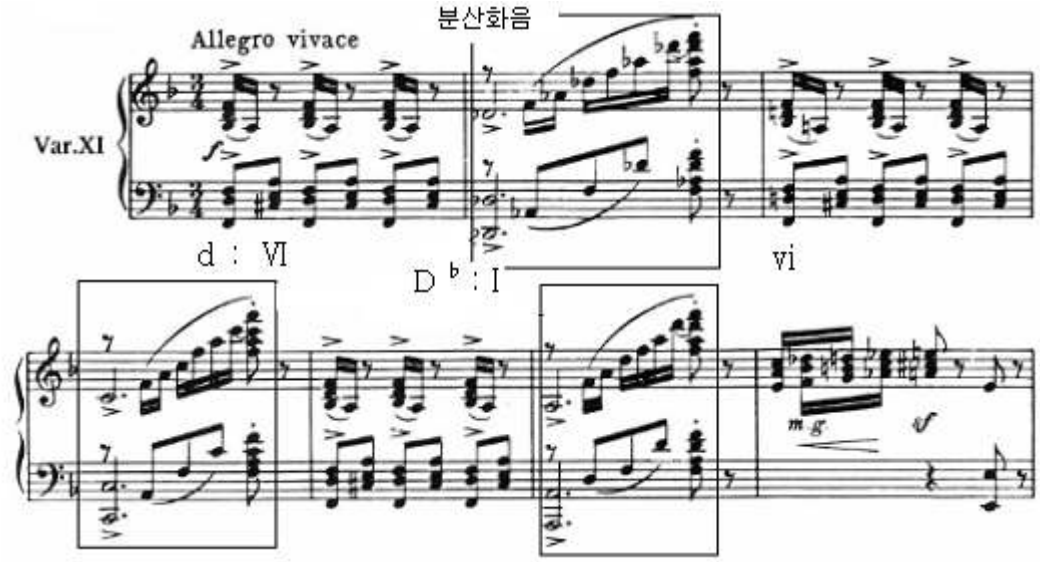


[악보25] 제 10변주1-7마디

Collection @ chosun

12. 제 11변주

제 11변주는 리듬에 의한 변주로서 빠르기는 제 10변주에 이어서 빠른 빠르기인 Allegro vivace이다. 조성은 d단조와 D♭장조가 교대로 나타나 화성적 색채감 준다. 16마디(8+8)구성이며 주제의 선율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두 마디의 동기가 반복하며 진행된다. 반음계적 진행과 분산화음에 의한 도약이 교대로 나타난다. [악보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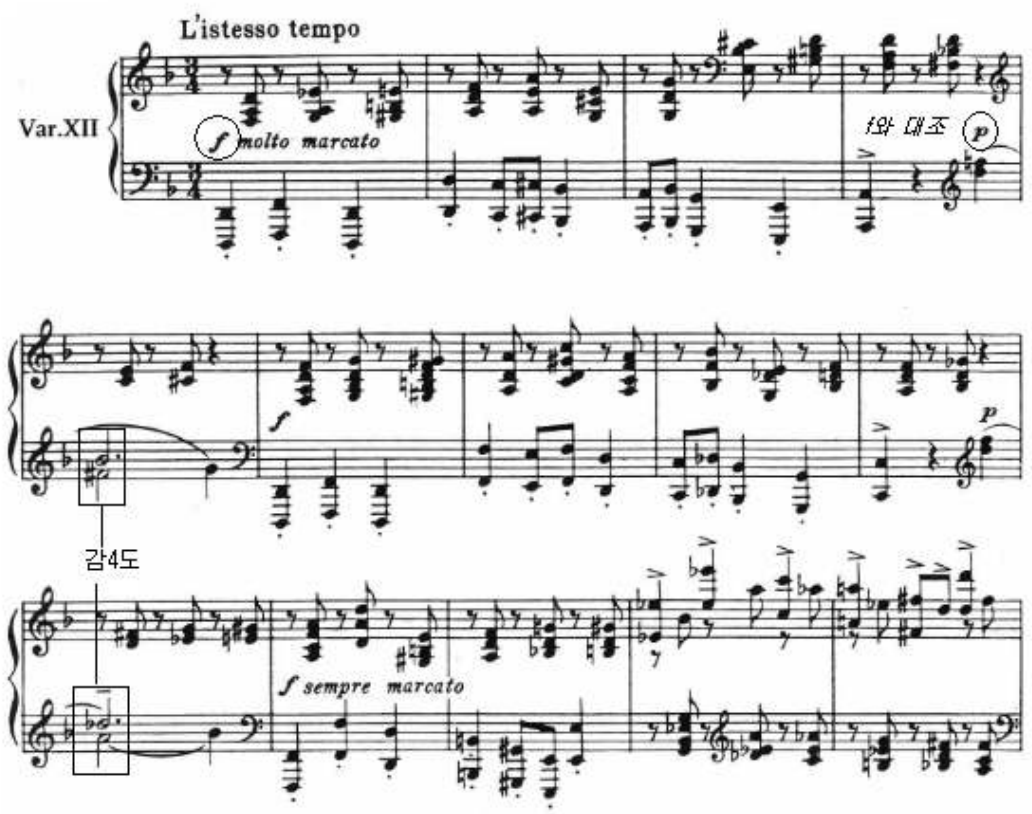
[악보26] 제 11변주 1-7마디

13. 제 12변주

제 12변주는 리듬에 의한 변주이다. Marcato의 사용으로 제 11변주보다 역동적이며 23마디(10+13)구성으로 6마디의 종결구가 붙는다. 왼손이 주선율을 연주

Collection @ chosun

하고 오른손의 8분음표 당김음이 나타난다. 1-5마디를 기초로 하여 계속 동형진행 하는데 5, 10마디에 감4도가 있어 전통적 종지 형식을 벗어났다. [악보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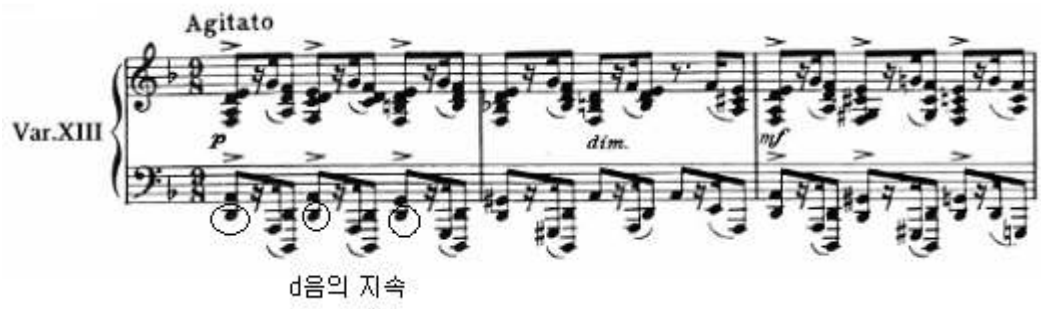
[악보27] 제 12변주 1-14마디

14. 제 13변주

제 13변주는 박자변주와 리듬변주에 의한 곡이다. *p*로 시작하고 빠르기는 Agitato로 전체적으로 부점 리듬과 첫 박에 악센트 사용으로 다이내믹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제 11변주부터 점차 빨라진 템포와 규칙적이고 역동적인 리듬이 긴

Collection @ chosun

장감을 더해간다. 박자는 주제와 다르게 8/9박자로 시작하여 6/8 – 8/9 – 6/8 –8/9 – 6/8박자로 잦은 변화를 보인다. 전반부의 왼손에는 d음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조성감을 유지하지만 11마디부터는 d음이 사라져 조성이 흐릿해진다. 화성진행은 주제와 같이 i – V 진행을 보인다. [악보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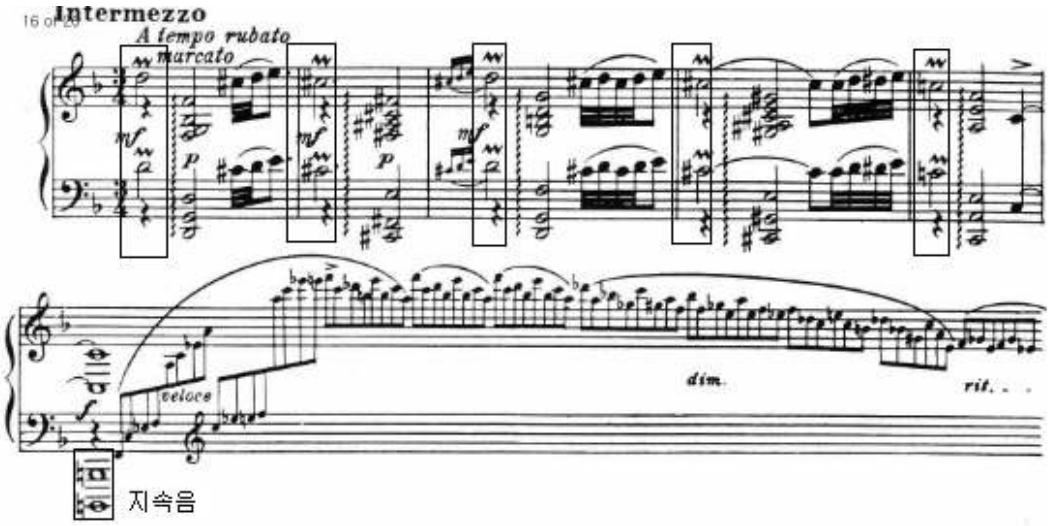
[악보28] 제 13변주 1–3마디

15. 간주곡(Intermezzo)[18]

간주곡은 제 11변주부터 제 13변주까지의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시키며 전체 3부분의 구성중 제 2부분의 종결구 역할을 하는 곡이다. 카덴차[19]적인 요소로서 주제선율에 장식적 요소가 더해져 꾸밈음, 아르페지오 사용으로 화려함을 느낄 수 있다. 1–5마디에서 주제 선율이 나타나고 7–11마디는 F장조로 전조된다. 1–13마디는 D♭장조로 가기 위한 연결구 부분으로 c단조와 e♭단조의 Ger.6th 화음이 분산화음 형태로 펼쳐진다. [악보29]

18) 간주곡(intermezzo) : 규모가 큰 악곡 등의 중간에 삽입하여 연주되는 악곡을 가리킨다.
19) 카덴차(Cadenza) : 원래 종지형을 뜻하는 단순한 음악용어였으나 16세기경부터 악곡이나 악장의 마침 직전에 삽입하는 즉흥적인 기교적 독주 부분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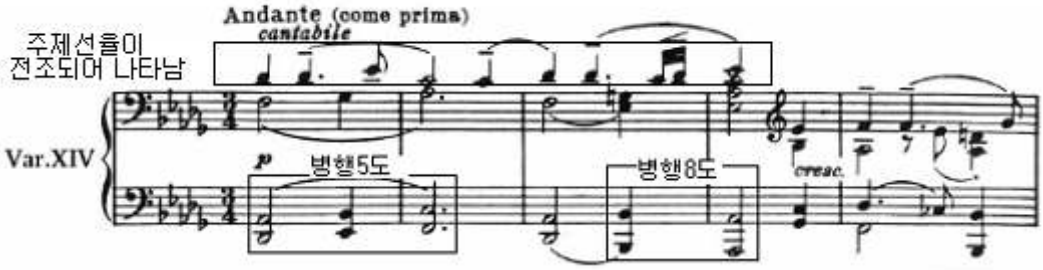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악보29] 간주곡 1-6마디

16. 제 14변주

제 14변주는 조성에 의한 변주이며 제 3부분의 시작인 제 14변주는 조성이 d 단조에서 D♭장조로 바뀌었고 주제선율은 주제보다 한 옥타브 낮게 재현된다. 병행5, 8도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화성에 변화를 주고 있다. [악보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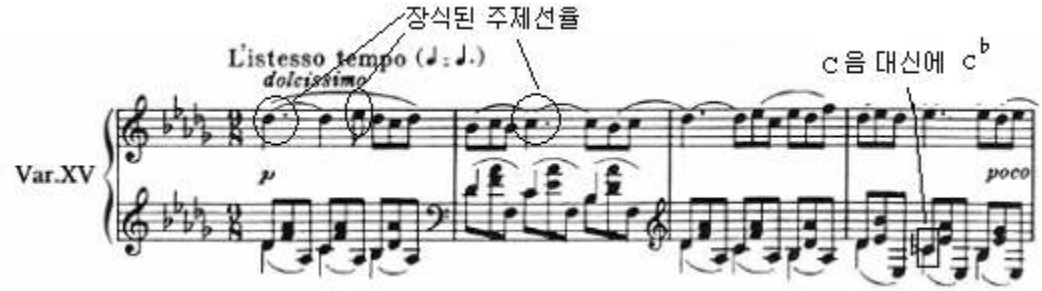


[악보30] 제 14변주 1-5마디

Collection @ chosun

17. 제 15변주

제 15변주는 박자, 조성, 선율, 리듬에 의한 변주이다. 26마디(12+14)구성으로 8/9박자로 시작하여 6/8 – 8/9 –6/8박자로 바뀐다. 보조음이 주제선율을 장식하며 순차진행 하고 왼손도 순차진행하고 있다. 첫 박을 강조하는 ♩. ♩ ♪♫♫ 리듬과 둘째박을 강조하는 ♫♫♩. ♫♫ 리듬이 나타난다. V도 화음의 3음인 c음 대신에 이끔음인 $c^{\flat}$을 사용하였다. [악보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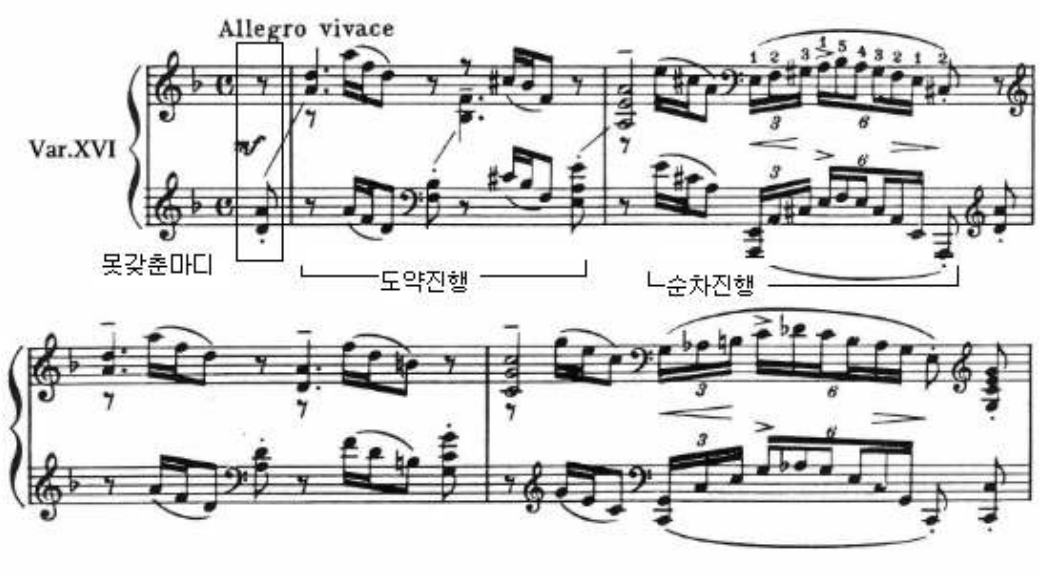


[악보31] 제 15변주 1–4마디

18. 제 16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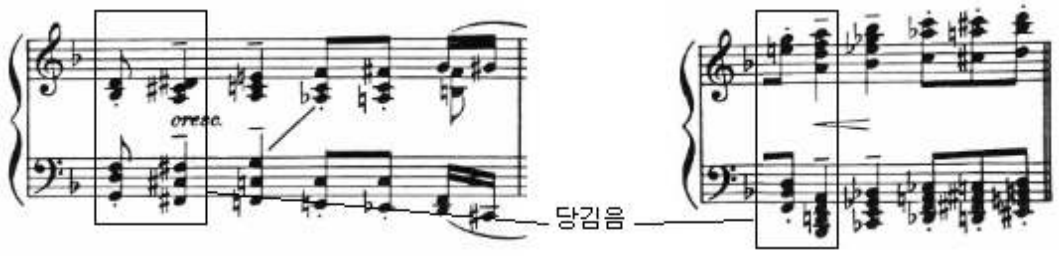
제 16변주는 박자와 리듬에 의한 변주로서 곡 전체 중에 유일하게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변주이다. 빠르기는 Allegro vivace, 조성 또한 d minor로 복귀하였다. 4/4박자이며 15마디(8+7)구성이다. [악보32]

Collection @ chosun



[악보32] 제 16변주 1-4마디

전반부 1-8마디는 주제와 동일한 화음진행을 보이지만 9마디부터는 반음계적인 선율에 의해 진행 한다. 전체적으로 도약과 분산화음에 의한 진행이며 8, 10, 12마디에서 증2도, 감3도를 이용하여 분산화음 펼친다. 14-15마디에서 반음계적 진행이 나타나고 종지가 생략되었는데 제 17변주의 첫마디에서 종지를 한다. [악보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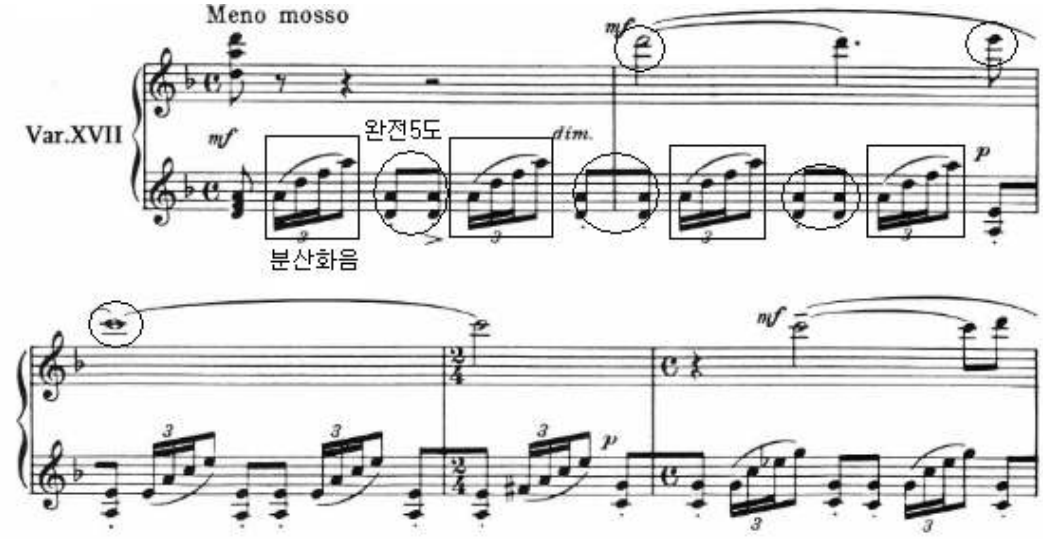


[악보33] 제 16변주 9마디, 17마디

dCollection @ chosun

19. 제 17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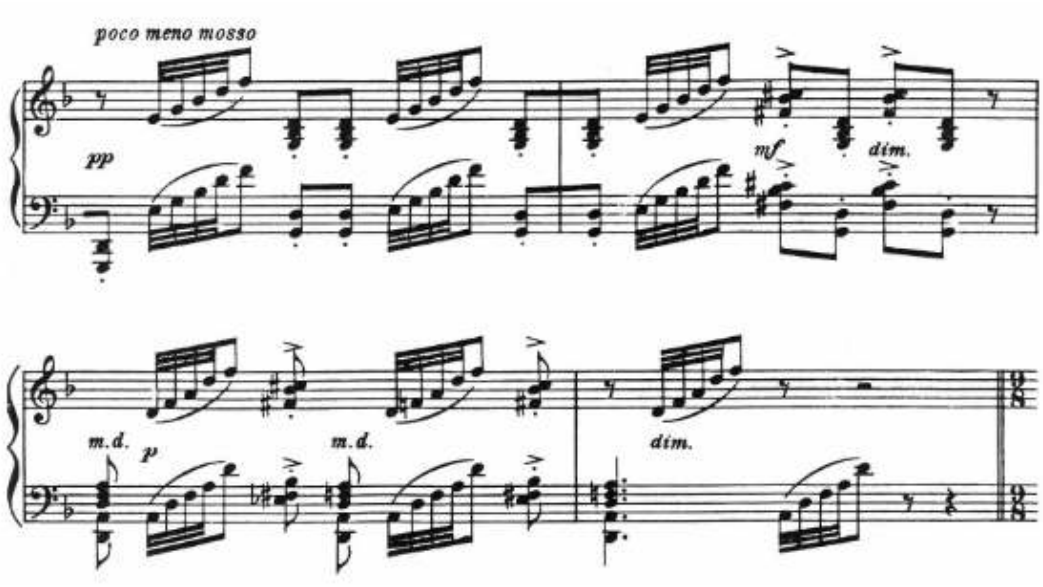
제 17변주는 박자와 리듬에 의한 변주로서 빠르기는 Meno mosso로 제 16변주보다 느린 곡이다. d단조의 3화음으로 시작하는 제 17변주는 23마디(8+11+4)구성으로 주제의 1-2마디를 모티브로 하여 2-3마디에 주제선율이 나타나고 있다. 왼손의 ♪ 3 ♪ 리듬이 19마디까지 이어지다가 20마디부터는 3 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완전5도와 분산화음이 사용되었다. [악보34]



[악보34] 제 17변주 1-5마디

20-23마디에서는 양손이 유니즌(unison)을 이룬다. [악보35]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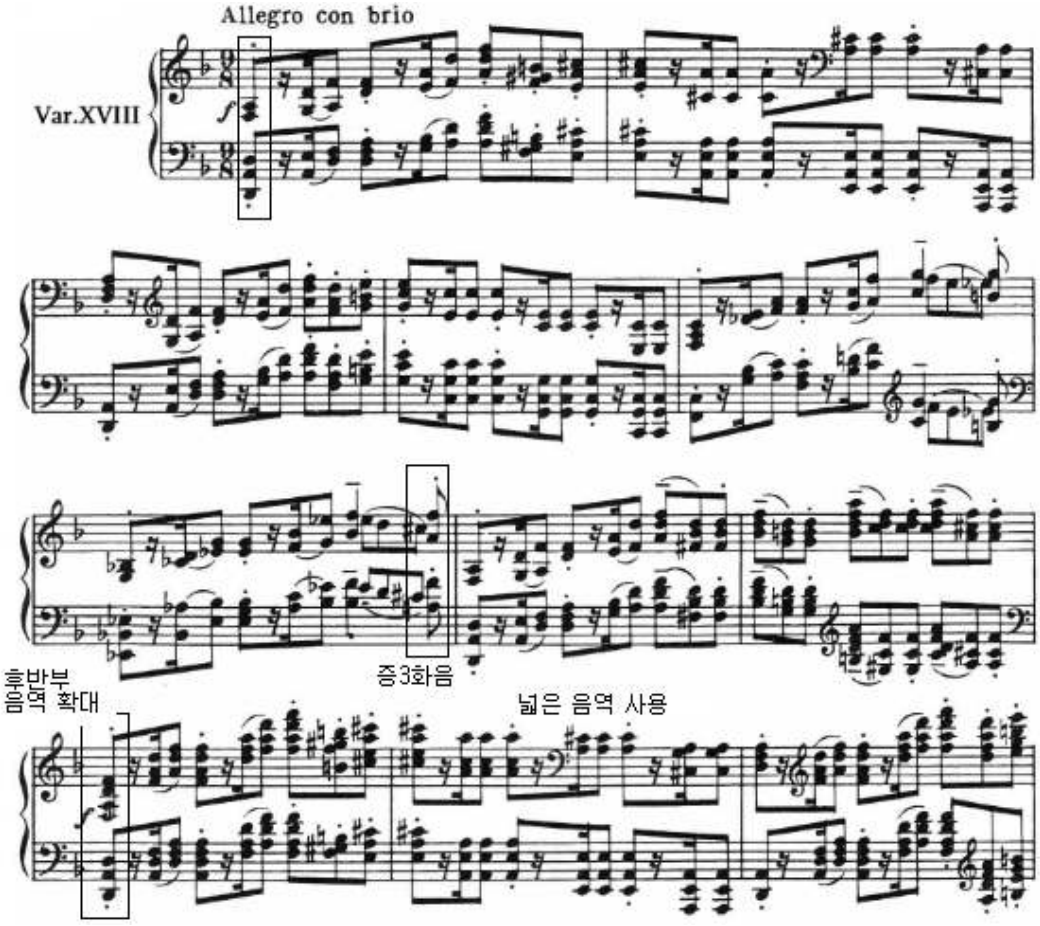


[악보35] 제 17변주 20-23마디

20. 제 18변주

제 18변주는 박자와 리듬에 의한 변주이다. 제 18변주부터 제 20변주까지 이 작품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데 빠르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빠르기는 Allegro con brio, 16마디(8+8)구성이며 전체적으로 *f*를 사용하여 강한 다이내믹을 역동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넓은 음역을 오가는 진행은 긴장의 연속으로 제 13변주의 리듬을 바탕으로 하여 수직적으로 더욱 풍성해진 화음들을 느낄 수 있다. 첫 박에 강세를 두는 부점 리듬이 모든 성부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증3화음을 사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였다. [악보36]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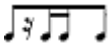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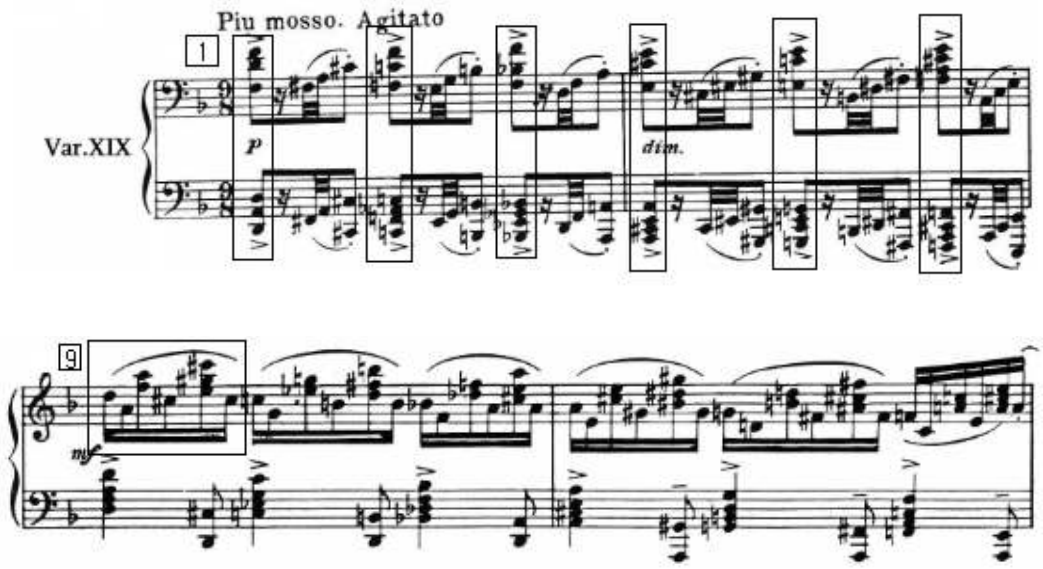
[악보36] 제 18변주 1-11마디

21. 제 19변주

제 19변주는 박자와 리듬에 의한 변주로서 Più mosso Agitato에서 알 수 있듯이 더욱 흥분된 느낌의 곡이다. 8/9박자, 17마디(8+6+3)구성으로 1-8마디에 주제선율이 제시되고 이것을 축소시켜 9-14마디에서 재현된다. 6/8박자로 바뀌는 마

Collection @ chosun

지막 3마디는 제 20변주로 가기 위한 연결구 기능을 한다. 전체적으로 양손 모두 반음계적으로 순차 진행 하며 후반부에서는 동형 진행한다. 제 18변주가 수직화음의 연속 진행인 것에 비해 제 19변주는 수직화음과 분산화음 모두 나타난다. 전반부에서는 리듬이 첫 박에 악센트가 있는 수직화음 형태가 나타나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9마디부터는  리듬이 분산화음으로 펼쳐진 반음계적 화성진행이 양손에서 나타난다. 15-17마디에서는 반음계적 하행진행으로 조성감이 모호해진다. [악보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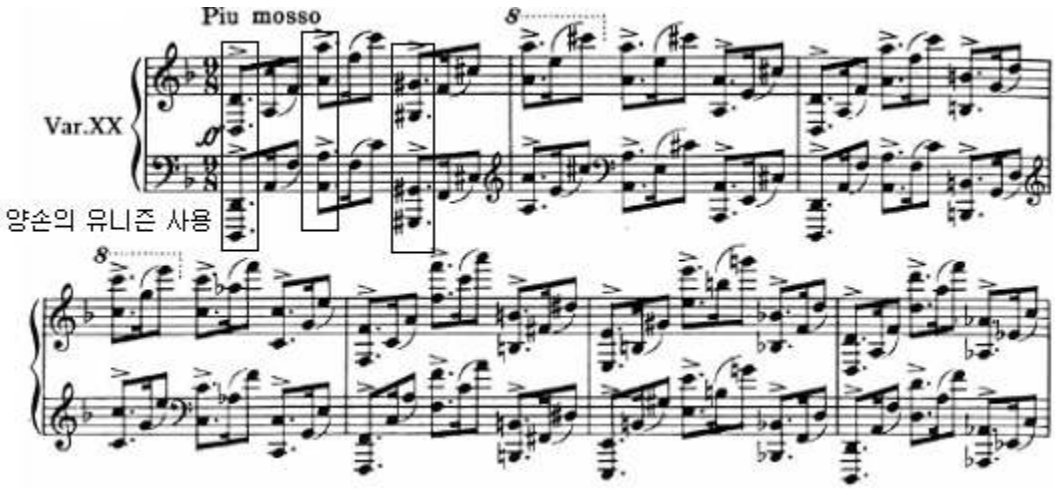
[악보37] 제 19변주 1-2마디, 9-10마디

22. 제 20변주

제 20변주는 박자와 리듬에 의한 변주이다. 27마디(12+15)구성으로 다이내믹이 절정에 이른다. 시종일관 *ff*를 고수하다가 코다로 넘어가기 2마디 전에 dim.를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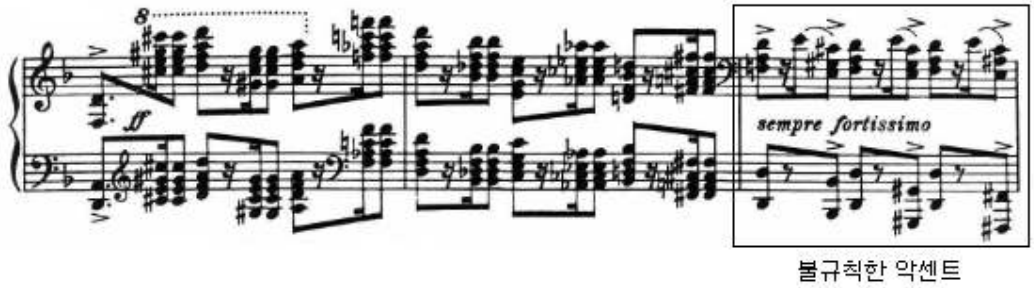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현하도록 한다. 양손이 유니즌으로 시작하여 도약진행에 의해 넓은 음역을 넓나든다. 주제선율은 찾아보기 어렵다. 제 19변주에서 쓰인 리듬이 리듬으로 변하여 사용된다. [악보38]



[악보38] 제 20변주 1-7마디

강박에 악센트가 사용되지만 15, 23마디에서는 불규칙한 악센트가 사용되기도 한다. [악보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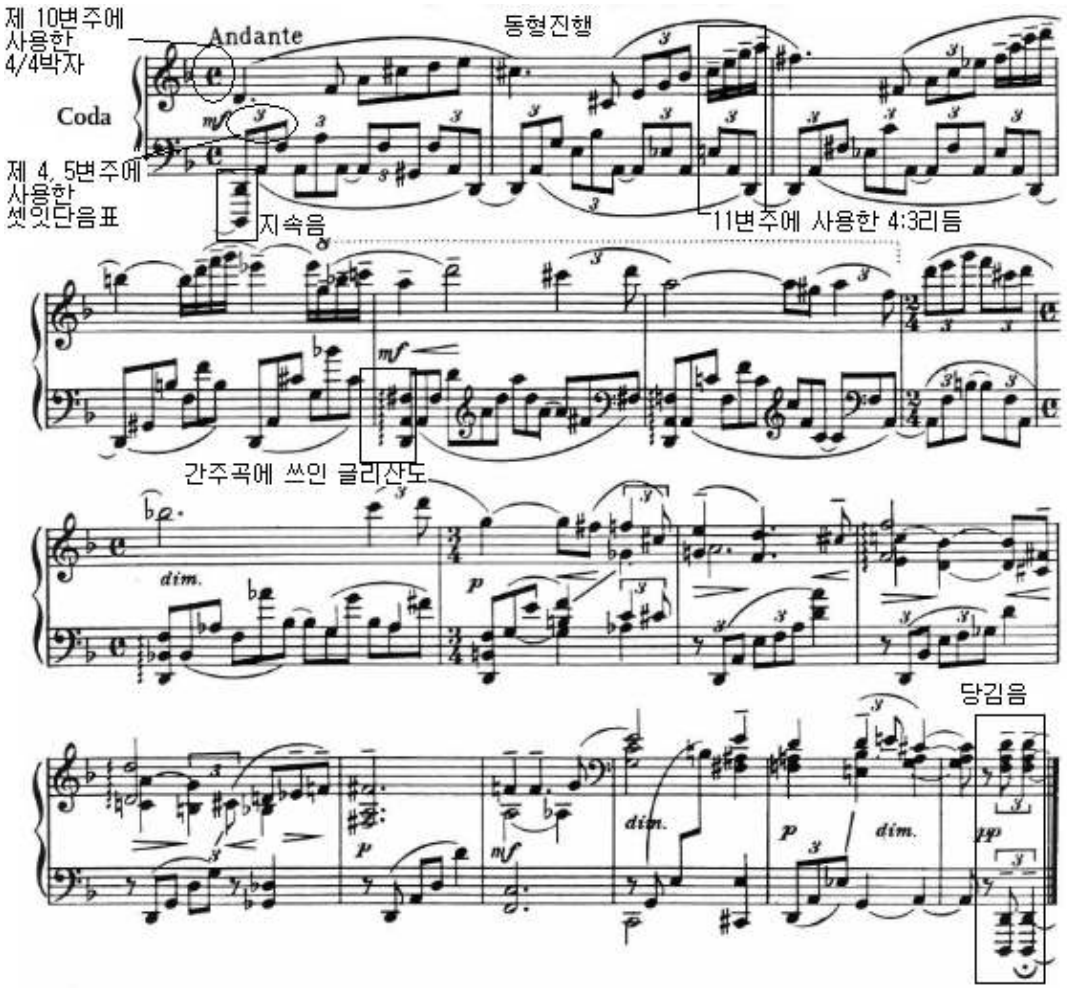
[악보 39] 제 20변주 21-23마디

Collection @ chosun

23. 코다(Coda)

코다는 박자, 리듬, 화성 등 변주 기법의 집결체이다. 템포가 주제와 동일한 Andante로 돌아오고, 주제 선율이 분산화음 형태로 동형진행 된다. 다이내믹도 *pp*로 약화되면서 지금까지의 긴장감이 풀어진다. 평온하고 애절한 노래가 이어진다. 왼손의 셋잇단음표, 오른손의 변형된 주제 선율이 2 : 3 또는 3 : 4의 리듬이 사용된다. 7, 14, 15마디를 제외하고 왼손에서는 d음이 지속음으로 강조하여 조성을 확실히 보여준다. 14-17마디는 주제선율이 그대로 재현되면서 *pp*로 여운을 남기며 곡이 끝난다. [악보40]

Collection @ chosun



[악보40] 코다

Collection @ chosun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변주곡이라는 형식과 시대별로 변주곡으로서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라흐마니노프의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를 통해 각각 변주들을 분석하여 연구해보았다.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 는 코렐리의 <Violin Sonata Op.5 No.12 La Folía>주제 선율을 그대로 사용한 성격변주의 한 형태이다. 라흐마니노프의 마지막 피아노 독주곡으로 20개의 변주에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였다. 리듬, 박자, 셈여림, 화성과 선율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각각의 변주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어간다. 라흐마니노프의 독특한 개성과 음악적 특징이 잘 드러난 곡이라 할 수 있겠다.

전체적인 구성은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제 – 제 7변주, 제 8변주 – 간주곡, 제 14변주 – 코다로 분류된다. 제 1부분은 조성과 박자가 일정하고 안정적인 구조와 느린 박자, 순차 위주로 진행을 한다. 이에 비해 제 2부분은 빈번한 전조와 변박, 비화성음을 포함한 반음계적 선율진행 등으로 인해 제 1부분에 비해 자유로운 형식이다. 제 3부분은 주제 선율이 D♭장조에서 재현되고 주제와 동일한 구조로 시작한다. 그러나 점차 빨라지고 반음계적 진행과 리듬에 의한 변주가 이어진다.

주제는 16마디의 두 도막 형식으로 각 변주의 주제 선율은 주로 이 주제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반음계적으로 순차진행 한다. 리듬은 당김음이나 부점 리듬, 셋잇단음표 등 다양한 형태의 리듬이 사용되었는데 당김음을 자주 사용하였다. 조성은 거의 d단조이고 셈여림 또한 큰 변화는 없다. 화성은 반음계적인 성부 진행, 조성의 모호성 등이 나타나고 이탈음이나 보조음과 같은 비화성음을 많이 사용하였다. 때로는 지속음을 사용하여 조성감을 나타내기도 고 피아노라는 악기의 넓은 음역을 활용하여 풍부한 음향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상 S. V. Rachmaninoff의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를

Collection @ chosun

살펴본 결과 그의 독창성이 돋보인 작품으로 여러 변주 기법을 활용하여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변주곡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본 논문이 변주곡 역사의 중요한 예로써 앞으로의 변주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Collection @ chosun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경임 역, (1996). 피아노 음악.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김동환 · 김정길, (1996).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의 이해와 실제. 서울 : 학문사
김순란 · 주성희, (2001). 음악 형식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김인심 역, (1995). 라흐마니노프. 서울 : 중앙일보사
박세경, (2004.12). 월간 피아노 음악. 서울 : 음악춘추사
설정환, (1995). 러시아 음악의 이해. 서울 : 음악춘추사
윤양석, (1986). 음악형식론, 서울 : 세광출판사
허방자 역, (1988). 서양음악발달사. 서울 : 삼호출판사

<사전>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편, (2001). DICTIONARY OF MUSIC. 서울 : 도서출판 음악세계
일신서적 편집부, (1994). 음악용어사전. 서울 : 일신서적출판사
Stanley, S. (ed.), (1980).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 London : Macmillan

Collection @ chosun

<논문>

송종림, (2006). 장식변주곡과 성격변주곡의 기법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서은영, (2009). Sergey Rachmaninoff 의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에 관한 분석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윤희정, (1993). 모짜르트와 베에토벤의 피아노 변주곡에 관한 비교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이수현, (2006).「S. Rachmaninoff의 Variations on a Theme by Corelli, Op.42」의 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전미영 · 양소영, (2006). 로시니 주제에 의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 연구. 서울 : 낭만음악사

최승화, (2008). S. Rachmaninoff 의「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의 분석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